

순익 절반 배당… NH의 실험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제332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9일>

구분	지수	변동
코스피	2030.27	(+0.01)
코스닥	684.29	(+2.56)
금리(국고채 3년)	1.6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23.50	(−9.50)

세무사 vs 회계·변호사

세무조정 밥그릇 싸움

"변호사도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정부, 작성권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대법 "납세자 재산권 침해" 지적에
세무사 "수십년 유지된 제도" 반박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누구나 계약의 자유 등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면서 상위법에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 전문가만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성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작성 주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길을 택했다.

작성 주체가 기존 시행령에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바꾸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세무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세무사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도 대구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이 같은 논란은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작성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려고 해 기본권 제약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8월의 판결문에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를 통해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관계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데도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 취지는 외부세무조정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데 중점을 둔 판단"이라면서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것"이라며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 행정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으로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논리와 대치되면서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간의 갈등은 국회로 바통이 넘어갔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中 GDP 7%선 무너져

3분기 성장률 하락… 전년比 6.9%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3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19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국내총생산(GDP)이 48조78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3분기 들어 성장률이 하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3분기 GDP는 17조3595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성장률 6.2%를 기록했던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반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7.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0%로 낮아졌다. 3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7%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산업별로 보면 3분기까지 1차산업은 3조 9195억 위안으로 3.8%, 2차산업은 19조 7799억 위안으로 6.0%, 3차산업은 25조 779억 위안으로 8.4% 성장했다.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면서 3차산업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1·2차 산업의 둔화 정도 만큼 3차산업이 큰 성장은 하지 못한 셈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중국은 10조 달러라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사실 7% 가까운 성장속도도 대단한 것"이라며 "1~3분기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서비스업 증가 속도는 제2차 산업보다 빨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미래 경제 발전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김옥찬 서울보증사장 KB금융지주 사장 내정



김옥찬 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전격 내정됐다.

김 사장은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보증보험 사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KB금융 사장으로 옮기기 위한 수순이다. 후임 서울보증보험 사장에는 최종구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12면>

이날 KB금융에 따르면 김옥찬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단독 추천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따른 업무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면서 금융지주 사장은 그동안 공석인 상태였다.

KB금융지주 사장으로 내정된 김 사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2년 국민은행에 입행한 뒤 재무관리본부장, 재무관리그룹 부행장, 경영관리그룹 부행장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행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KB금융 내에서 그는 업무능력과 함께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한편 후임 서울보증보험 사장에는 최종구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최 전 수석은 기획재정부 국제업무 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사임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The people who start at dawn. “Disappointed? no we are delighted”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섭섭하냐고요? 흐뭇합니다”

Shin Jung Vehicle Registration Office, which is located in Seoul Yangcheongoo, was very lively even though it was early in the morning and dark on the 17th.

The busy employees came into sight in the lobby where I stayed untill 4:30 AM for the news gathering. After 4 AM the building lit up and become all bright. On the 4th floor, in the operation office, people were waking up the train engineers.

The veteran engine driver on the railway Park Hyungnyeol(46.male) with 18 years of experience's wake-up time is 4:50 and he is in charge of a train service at 5:50. Normal people would be in sound sleep before the weekend at this time. Park went to sleep very late after the overtime work but he's eyes were shining.

Park said “I am not tired or disappointed with the fact that I could not really take a rest on the weekend” “I am on this train again in order to serve passengers quickly and safely.”

He added “The majority of passengers in the morning are cleaners or security guards who are going for their shifts.” “It is worthwhile to serve them on the first train”

“I will keep trying my best to help passengers get to their destinations fast and safely with the best comfort.”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 서울메트로 신정 차량사업소. 칠흑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시각에도 이곳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취재 약속 시간인 4시 30분이 되기 전까지 대기한 1층 로비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시가 넘어서자 1층 로비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더니 이내 건물 안이 환해졌다. 4층 운영사업소에서는 기관사를 깨우는 기상 업무가 한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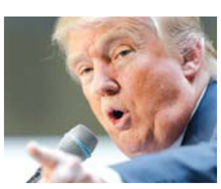
5시 55분 외선순환 열차 운행을 맡은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 박형렬씨(46·남)의 기상 시간은 4시 50분. 남들 같으면 휴일을 앞두고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 박 씨는 전날 오후 6시 출근해 야근까지 한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피곤하다거나 휴일에 쉬지 못해 섭섭한 건 없다”며 “오늘도 승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마음으로 차를 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청소원, 경비원들이 아침 손님의 대부분”이라며 “그는 그들의 발이 되는 것이 첫 차 운행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최대한 편안한 승차감으로 목적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소지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미국 대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국계 하버드생의 반론 이후에도 다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를 제기했다. 미국 보수 진영의 정서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중국** 당국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6년 반만에 7% 아래인 6.9%로 떨어졌다고 19일 공식발표했다.

▲ 미국은 10월 들어 필리핀을 비롯한 관련국에 해군 함정을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제도**(영어명 스프래틀리)에 건설 중인 인공섬 인근 해역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의 **'요섹남'**(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열풍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WP)에 소개됐다.

정치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석 현 차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가능성에 대해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 내년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안** 심의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지만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

▲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아내와 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패소판결했다.

▲ 택시 **감차사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벌게 됐지만 감차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 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과서 국정 전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을 찾은 시민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10월 국화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LG화학**이 그룹 내 대표 계열사로 자리매김 했다. LG화학이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서도 영업이익 5000억원을 넘겨 영업이익에서 그룹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 16일 매출액 5조1778억원, 영업이익 546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9일 애플 아이폰6s·6s플러스 예약 판매를 조기 마감했다.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모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 LG전자가 구글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 '마시멜로(Marshmallow)'를 탑재한 **'넥서스 5X'**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20일 출시한다.

▲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삼성·LG그룹**의 부품 계열사가 주목받고 있다. 웨어러블·정보기술(IT) 기기는 물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첨단 부품의 성능과 신뢰도가 중요해지면서다.

▲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일 싱가포르에서 재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생애 마지막 강연을 펼쳤다.

▲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인 **롯데그룹**이 아버지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19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동반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가격차이가 최대 5배 나는 **가정용 의자**의 품질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여소연)은 최저 6만원에서 최대 30만원대의 가정용 의자 브랜드 10개 모두 KS 기준에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 시내면세점 입찰에 나선 **SK네트웍스**가 지역상인과의 상생카드를 꺼내들었다. SK네트웍스는 기존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에 2400억원을 투자해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증권업계 1위(자기자본 기준)인 **NH투자증권**이 올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 배당에 배정키로 하는가 하면 증권업계에선 유일하게 노사간 통상임금 문제를 타결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 올해 들어 **국내 100대 주식부자** 순위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양용진 코미팜 회장 등 20명이 새로 진입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1조원의 주식자산으로 1위에 올랐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피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4개월 동안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대포통장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대포통장 명의가 가장 많았다.

리커창 "新 도시화, 中 경제 거대한 잠재력"

제조→서비스업 전환기
서비스 산업 성장 속도
제 2차 산업보다 빨라
새 하이라이트 가시화



연무가 대기를 뒤덮은 가운데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멈춰 선 베이징의 모습. 마치 중국의 성장 둔화를 상징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6년 반만에 7% 아래로 떨어졌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은 이전부터 많았다. 조정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는 말도 나왔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 중국 증시 파동은 중국의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외부에서는 중국이 내수, 개인 임금과 소비, 서비스, 사회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4~5%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왔다. 실제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돼 왔다.

중국이라고 이를 무시한 게 아니다. 중국은 현재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와 소비 위주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성공적으로 연착륙이 가능하냐는 게 문제다. 이날 경제성장률 발표에 앞서 리커창 총리는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모아 놓고 중국의 경제상황을 "과거와 현재의 운동 에너지가 전환하는 어려운 시기"라고 규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지방정부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운동 에너지의 약화는 경제 하방의 압력을 더해 주었지만, 새로운 운동 에너지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운동 에너지는 어느 정도는 기세가 등등해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돌출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성장 속도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1~9월에 이미 도시 신규 취업 한해의 지표를 앞당겨 완성한 것도 그 선명한 예가 된다"고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세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리 총리는 "비록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지만 경제 운영 중 새로운 트렌드와 하이라이트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산업 증가 속도는 제2차 산업보다 빨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형식도 번창해,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미래 경제 발전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7% 이하 성장률이라는 결과에 대해 "중국은 10조 달러라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이다. 사실 7% 가까운 성장 속도 실현도 대단한 것"이라며 "1~3분기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했다. 또 "세계 경제가 파동이 심상치 않고 회복이 어려운 큰 배경 속에서,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인 중국이 여전히 7% 가까운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신형 도시화'를 중국 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펀더멘털을 다지려면 먼저 기존 동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현재 3대 동력 중 효과적인 투자 여지는 여전히 매우 크다. 중서부 철도, 도로, 대형 수리 기반 시설에는 여전히 매우 큰 공간이 있다. 우리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관건은 신형 도시화에 우리 나라 발전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세가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기존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업그레이드 정책을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혁·개방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경제현장에서는 '관대한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싱가포르서 마지막 강연

"한인 경제인, 해외 경제 영토 넓혀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했던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일 싱가포르에서 재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생애 마지막 강연을 펼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에서 열린 제20차 세계한인경제대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선진 한국을 이끈다'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싱가포르는 그가 해외 진출 1호 지사를 세웠던 나라다. 이날 김전 회장은 '여생' '마지막'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번 무대를 끝으로 더는 강연에 나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세계 40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700여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그는 "27살에 처음 해외에서 주문을 받은 곳이 싱가포르였고 그게 한국 최초의 직수출이었다"며 "대우를 설립하고 나서 첫 지사를 이곳에 세웠는데 그 또한 한국 기업 최초의 해외 지사로 기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비결로 자신을 비롯한 동포 기업인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시장 개척을 꼽은 뒤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한인 경제인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싱가포르 센토사리조트 월드 컨벤션센터에서 19일 개막한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탄탄한 제조업 육성, 해외 경제 활동 네트워크의 강화, 차세대의 올바른 육성 등 세 가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회장은 "더 많은 한국인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며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20%는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해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회장은 강연 자료 마지막에 아시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김 전 회장은 "국내외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의 한상 기업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려면 경제 네트워크가 굳건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월드옥타와 같은 한인 경제인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 비즈니스가 더욱 활발해지면 전경련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글로벌 YBM(Young Business Manager·청년사업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젊은 이들이 해외 신흥시장에 도전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소개한 뒤 "월드옥타 회원들이 차세대 무역스쿨 등을 개설해 젊은 인재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반겼다.

김 전 회장의 현재 활동 무대인 베트남에서 시작한 글로벌 YBM은 지난 5년간 수료생의 100%가 취업에 성공하며 인지도를 넓혀 미얀마, 인도네시아로 확대했으며 연간 500명의 수료생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나눈 대화 내용을 엮은 대화집 '김우중과의 대화 –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통해 지난 1999년 대우그룹의 해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들과의 악연으로 빚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해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국정교과서 이념논쟁 비화… 우려하는 民心

반대 세력 잇따른 집회에 찬성론자 지지 목소리 높여

예산심사… 여야 대치 팽팽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찬반세력이 첨예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고(왼쪽 사진), 같은 날 일민미술관 앞에서는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 회원들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 사회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찬반세력이 첨예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세 대결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정치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각계단체에서 쏟아지는 등 정부가 힘을 얻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 주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2명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면서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어 국정교과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국정 교과서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국민 분열에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아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지지 선언을 한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지금 도가 넘치게 여러 공세를 하고 있다"며 "아직 집필진 구성도 안됐는데, 집필 시작 전에 친일 미화, 역사 왜곡, 독재적 발상이라고 국민 분열에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반대 기류도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했다. 이어 오후 7시에는 인헌고교와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각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사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와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펼쳤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집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 등의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 문제와는 별개"라며 국정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역사학과 교수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자 입장 밝히기에 집중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대치를 벌일 경우 지역 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오후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한 이 대학 교수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은 간 데 없고 이념에 치중된 불필요한 논쟁만이 남은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 없이 연일 정치적 수사를 담은 맹공이 오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에 드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념 전쟁에 이어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육사 총동창회 "역사 국정교과서 지지"

국회에 한국사 바로세우기 동참 촉구



김충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사운데) 등 육사 총동창회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역사교육이 잘돼야 국가안보가 튼튼해진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충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육사에 입교한 신입생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했다"며 "미국 34% 북한 33%, 일본, 중국 순으로 답변한 결과를 확인했다. 충격적 답변의 원인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동창회장은 "역사적 사실은 시대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신안보세대'로 불리는 애국적 젊은이들은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체험한 세대이며,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확고한 역사의식과 국가관은 정신전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동창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 시키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정론을 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 ▲ 한국사 바로세우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역사적 진실의 백신'이 필요하다"며 "국군의 정통성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여 균형감있는 집필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되도록 제도화 ▲육사 총동창회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 지지 등을 주장했다. /유선준 기자

靑 개각… 국토장관 강호인·해수장관 김영석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등 6개 부처 차관 교체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석 현 차관을 내정하는 등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또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하고, 6개 부처의 차관 교체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고위직 인선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를 위한 부분 개각의 의미와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이전문제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 외교참모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부분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인사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이날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 교체 인사를 단행해 이른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순차개각의 시작을 알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각각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현안이 있고, 김희정 여성부 장관은 아직 후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이번 개각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12월중으로는 3개 부처 장관 교체 작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강호인 국토장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차관보, 조달청장을 역임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행시 27회 출신으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해수부 차관을 지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부분적인 교체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왔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한국형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임 외교안보수석에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각각 기용했다.

신임 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차관보와 1차관을 역임한데다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지내 현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다뤄봤다는 점이 발탁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신임 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부에서 북미국장과 북핵외교 기획단장, 한반도 본부장, 1차관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와 북핵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6개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송언석 현 기재부 예산실장을, 교육부 차관에는 이 영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장관내정자 프로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경남 함양(58) ▲연세대(경영학)·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경제학) ▲행정고시 24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공공정책국장·차관보 ▲조달청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충남 아산(55) ▲천안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정고시(27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 해양개발과장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해양수산부 감사관 ▲〃 홍보관리관 ▲〃 해양정책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국제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

美냐 中이냐… 선택기로에 선 韓 외교

남중국해 인공섬에 美해군 함정 파견 통보

美 "영유권 주장 용납 못해" 中 "침범 절대 허용 못해"



스코트 스위프트 미 7함대 사령관이 지난 6일 시드니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10월 들어 필리핀을 비롯한 관련국에 해군 함정을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제도(영어명 스프래틀리)에 건설 중인 인공섬 인근 해역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함정 파견을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함정을 파견할 경우 중국의 맞대응은 불 보듯 뻔하다. 이때 한국이 침묵을 지킨다면 한미 관계에서 균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함정 파견을 외교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해군함정을 파견할 방침을 정했다며 각국에 이해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각국에 함정을 조기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난사제도의 군사화 의도를 부정했다. 동남아시아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실제 파견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 소식통은 "국제법상 언제든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파견 방침은 복수의 미국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공식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결의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영해와 영공의 침범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이 함정을 파견하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암초 매립지와 시설 건설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 위해 강경 자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시 주석의 미국 방문 때만 해도 이처럼 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지는 않았다. 당시 미중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등 두 건의 합의문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이 결국 함정 파견을 결정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분명한 줄서기를 요구한 셈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비호하에 성장한 한국이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美 WP "한국의 '요섹남', 부엌 풍경 바꿔"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유교문화와 어울리지 않아 열풍, 피상적인 현상일 것



'올리브쇼 2015' MC 홍진호(왼쪽), 최현석 셰프. /CJ E&M

한국의 '요섹남'(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열풍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 소개됐다.

WP 인터넷판은 19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요리 프로그램의 새 요소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요섹남 열풍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보다 앞서 지면에 소개된 같은 내용의 기사는 더욱 자극적인 '요섹남이 한국 부엌 풍경을 바꾼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WP가 요섹남 열풍에 주목한 이유는 동북아 문화의 밑바닥에 있는 유교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다는 이유였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남자의 주방 출입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이다.

WP의 분석결과는 '먹방'(먹는 방송)이나 '쿡방'(요리 방송)의 유행을 타고 요섹남 열풍이 불고는 있지만 유교적 부엌 문화까지 바꾸지는 못하는 피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기사에 포함된 인터뷰 내용이다.

정선희 씨는 "요리하는 셰프들이 매력적이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요리를 자주 하는 남자를 보긴 드물다"고 말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요리를 만들어 주는 남자들은 드물다는 지적이다.

사회 비평가 구세웅 씨는 "방송의 요섹남 열풍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다. 이상적인 삶, 가정을 요섹남에서 찾고 있지만 실제 요리사들은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산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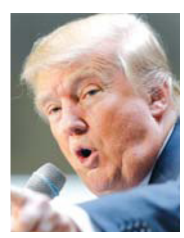
다만 어느 정도의 변화는 진행중이라고 WP는 봤다. 요리 수업을 진행하는 남성열 씨는 "예전에는 50명의 수강생 중 남자가 5명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20명가까이가 남성"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판타지' 수준에서 벗어나 남성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WP는 요섹남 열풍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먹방과 쿡방 열풍도 함께 소개했다. 먹방은 "온라인에서 먹는 모습을 다같이 모여서 시청하는 특이한 방송"으로 소개됐다. 쿡방은 "잘생기고 능력있는 셰프가 방송에서 요리를 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WP는 이 같은 요리 프로그램 열풍의 이유로 "한국인들은 혼자보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같은 냄비에 담긴 국을 함께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인은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며 "인사도 '잘 지내니' 대신에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송병형 기자

트럼프 또… "한국 공짜방어 해준다"

다시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



미국 대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사진)가 한국계 하버드생의 반론 이후에도 다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를 제기했다. 노련한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후보가 사실 관계를 모르고 이처럼 돌출 행보를 계속한다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미국 보수 진영의 정서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가십거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또 미 대선전이 후반으로 갈수록 보수 진영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중국 쏠림' 비판 역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트럼프 후보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이 방송에 출연해 "2만8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가 있으며, 한국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주문한 4000여대의 TV 세트가 한국으로부터 왔다. 나는 한국에 TV세트를 주문하고 싶지 않고 미국에서 주문하고 싶지만, 미국에는 TV를 만드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미국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에서 한국계 하버드 대학생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으로 분담하는) 돈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는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국가를 미국이 방어해줘야 하느냐. 이런 상황을 바꾸어야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 TV 4000대 이야기도 이때 처음 나왔다.

폭스뉴스 방송에서 트럼프는 중국까지 걸고 넘어졌다. 그는 "보잉사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중국에 대형 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이 보잉사로부터 비행기를 구매하면서 (공장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 회사 비방, 어디까지 허용되나? |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노동계 논란 일파만파 "사측 비판 해고, 탄압"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희망퇴직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증권이 사측의 구조조정 행태를 비판한 노조위원장의 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에서 요구한 이남현 노조위원장의 면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면직 요구 이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이다.

이 위원장이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대신증권이 2012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과 무관치 않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 저성과자를 선정한 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기발령,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퇴직 수순을 밟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자연퇴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3개월치 기본급만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됐다.

2014년 1월 대신증권 노조가 설립된 후 사측은 전략적 성과관리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이들은 최대 24개월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지난해 이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데 이어 이후에도 이 위원장의 사측 비판이 계속되자 올해 다시 감사를 해 결국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지대 이사장을 비판한 교수의 파면 조치 소송에서 "정씨(교수)가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한 (비방)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리 검토가 수반돼야하지만 이 위원장의 해임 논란이 법정으로 갈 경우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대신증권 측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 후 사측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계속 거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지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상지대 이사장 비판 교수, 파면 위법"

法 "주요 동기는 공익목적"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상지대학교 재단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연미란 기자

삼성 라이온즈 '원정도박 스캔들'

선수 2명 출국기록 확인

경찰 "비슷한 시기 홍콩행"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 2명이 정규시즌이 끝나고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원정 도박 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두 선수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두 선수가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할 수 없지만 두 선수가 비시즌 중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들 선수가 지난 1월 홍콩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두 선수가 같은 비행기를 타지는 않았지만 체류 기간이 겹칠 정도로 홍콩에 간 일정이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홍콩에서 배편 등으로 마카오로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8월 두 선수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마카오 카지노의 '정킷방'에서 10억원 이상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킷방 도박은 조폭이 정킷방을 이용하는 도박꾼들에게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서 국내 계좌로 수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보자는 조폭이 환치기에 쓴 구체적인 은행 계좌 정보까지 경찰에 제공했으며, 경찰은 법원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 계좌를 분석 중이다.

또 두 선수와 조폭 조직원 간 전화 통화 내역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환치기 계좌 분석이나 통신 추적 등에서 두 선수가 연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제보를 확인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두 선수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반갑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찰 창설 70주년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에서 알리 압둘라 알완 알누이미 아랍에미리트 경찰청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감차사업, 계속되는 '보상금' 갈등

77억 예산 불용 위기

택시 감차사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벌게 됐지만 감차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감차사업은 차량의 수나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에 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택시조합과 감차보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용(不用)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면서 전체 시내택시 7만 2160대의 16%에 해당하는 1만 1820대를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우선 올해 전체 감차량의 5%인 591대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사업 기간이 배로 연장되면서 올해 당초 목표량의 절반인 약 295대만 줄여도 되는 셈이 됐다.

그러나 정작 감차의 전제 조건인 감차보상금과 감차량 배분 등을 놓고 감차위원회 내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차보상금 지원금은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거래가격(7500만원)에서 감차보상금 지원금을 제외하면 60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는 택시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는 4000만~5000만원, 개인택시는 6500만~7500만원선에서 감차보상금을 책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개인택시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연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둔 조합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감차보상금을 1억원까지는 받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등 서울시 제시안과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했으며 다음 달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소재면 소재… 전지면 전지… 전 부문 실적 호조

미다스의 손 LG화학, 그룹 '효자' 부상

2분기 연속 5000억대 영업익
中 점유율 확대 매출 장밋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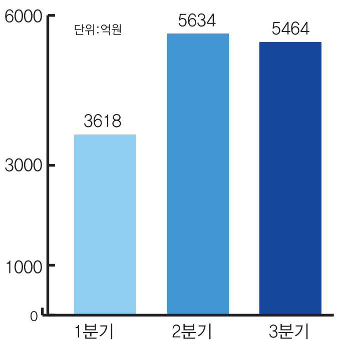
LG화학이 그룹 내 대표 계열사로 자리매김 했다.

LG화학이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서도 영업이익 5000억원을 넘겼다. 영업이익에서 그룹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 16일 매출액 5조1778억원, 영업이익 546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5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52.8% 급증했다.

2015년 LG화학 영업이익 추이



2분기에 비해 매출은 2.1%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0%씩 감소했지만 2분기에 이어 LG그룹 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LG화학은 3분기 전 사업부문에서 호조를 보였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기초소재부문은 매출액 3조7916억원, 영업이익 48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9%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58.0%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기초소재부문은 저유가로 피해를 우려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와 주력 제품의 견조한 스프레드(제품가격-원재료가격) 덕분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정보전자소재부문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매출액 7103억원, 영업이익 5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95.1% 늘었다.

중국에서 초고화질, 대형TV 추세에 따른 남경 편광판 라인 물량이 대폭 증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전지 부문 역시 전분기에 비해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 7689억원, 영업이익 102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3%로 개선됐다. 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10.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4.3% 감소했다.

소형인 모바일 전지는 신규 시장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으며 자동차 전지는 신규 고객 중심의 판매가 확대돼 매출이 증가했다.

LG화학의 양호한 실적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전자소재부문은 중국에서 편광판 고객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물량이 증가했다.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 등으로 자동차용 배터리 부문 역시 실적 개선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조석제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은 "기초소재 부문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원료 안정화를 기반으로 견조한 스프레드,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경쟁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보전자소재는 중국 편광판 고객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전지부문은 주요 고객 점유율 확대를 통한 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 증대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기아차, 국제디자인총회 메인스폰서 후원

기아자동차는 17~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5 국제디자인총회'에서 메인 스폰서로 협찬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40여개국 3000여명의 디자이너가 참석한다. 기아차는 9월에 출시한 신형 스포티지 차량을 컨벤션 내에 전시하고, 기조연사들을 위한 의전차량을 제공한다. /기아차

LG화학 OLED, LG디스플레이에 양도

LG그룹이 차세대 성장동력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사업을 LG디스플레이로 일원화한다. OLED관련 사업을 LG디스플레이로 집중시켜 핵심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

LG화학은 소재사업 집중을 위해 OLED 조명 사업을 LG디스플레이에 양도키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양도일은 12월 15일이며 양도가액은 1600억원이다.

LG화학의 OLED 조명 사업 생산라인은 현재 오창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조명 사업 양도를 결정했다.

OLED 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 이후의 차세대 조명으로 불리는 제품으로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다. 등기구와 같은 부속품이 필요없고 일정한 지점에서만 빛을 발산하는 점광원이 아닌 램프 표면 전체에 균등하게 빛을 내보내는 면광원이라 친환경적이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올해초 LG전자 OLED 특허법인 지분도 인수했다. OLED 관련 사업을 모두 LG디스플레이로 집중시켜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1일 이사회에서 OLED 사업 양수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양성운 기자

현대로템 '시속 100㎞' 차륜형장갑차 공개

방산전시회 참가

현대로템은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5(ADEX)'에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실내전시관에 한국형 차륜형장갑차사업 전략모델을 필두로 미래전투차량, 웨어러블 로봇, 지뢰탐지 로봇 등 그간의 연구성과물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주력 제품인 K2전차, 차륜형장갑차(사진), 지휘소용 차륜형장갑차 모형들도 함께 전시한다.



사측에 따르면 차륜형장갑차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기술력과 현대로템의 전차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접목한 차세대 전투장비다.

도심지역 및 확대된 전후방 작전지역에서 요구되는 기동성, 수송성, 운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네트워크전 수행도 가능하다.

차륜형장갑차의 지상 주행속도는 100km/h 이상, 수상 속도는 10km/h 이상이다. 기본형인 '6×6형(좌우 바퀴 3개씩)'과 보병전투용인 '8×8형(좌우 바퀴 4개씩)' 등 2종류로 분류된다. /이정필 기자

현대차 미니버스 '쏠라티' 1호차 주인공 탄생

정범준 상회기획 대표에 전달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미니버스 '쏠라티'의 출고를 알리며 1호차를 고객에게 전달했다.

현대차는 19일 전주 상용차 공장에 신축한 홍보관에서 정범준 상회기획 대표(41)에게 쏠라티 1호차를 전달했다.

쏠라티는 현대차가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개발한 모델이다.

▲전장 6195㎜ ▲전폭 2038㎜ ▲전고 2665㎜ ▲휠베이스(축거) 3670㎜의 제원을 갖췄다.

14인승부터 16인승까지 승객석 시트 구조를 다양화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또 ▲차체의 75% 이상에 고강력강판 ▲방청강판 98% ▲제동성능이 우수한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차체자세 제어장치(VDC)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등을 적용했다.



19일 현대차 전주 상용차 공장에서 유재영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오른쪽)이 정범준 상회기획 대표에게 쏠라티 1호차를 전달하고 있다. /현대차

지난 4월 말부터 해외에서 'H 350'이라는 차명으로 판매를 시작한 쏠라티는 지난달까지 해외시장에서 2900여대가 팔렸다.

국내에서도 사전계약 대수가 500여대에 이르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국지엠 쉐보레 레이싱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종합우승



한국지엠은 쉐보레 레이싱팀이 전날 전라남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5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GT 클래스 시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배기량 5000cc 이하의 다양한 차종이 접전을 벌인 GT 클래스 최종전에서 쉐보레 레이싱팀은 1.8리터 터보 엔진을 탑재한 2대의 크루즈 레이스카로 선전을 펼치며 승점을 더했다.

이에 2007년 팀 창단 이래 7번째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쉐보레 레이싱팀은 크루즈 레이스카로 시즌 내내 후륜 구동 기반의 경쟁사 레이스카들의 견제에 맞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IoT 시대’… 삼성·LG 부품 계열사 뜬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자동차 등 첨단 부품 성능 중요성↑
차세대 성장동력 가능성 커… 관련 사업 부각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삼성·LG그룹의 부품 계열사가 주목받고 있다. 웨어러블·정보기술(IT) 기기는 물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첨단 부품의 성능과 신뢰도가 중요해지면서다.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IoT산업이 각광 받으면서 종합부품회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대다수 IT기업들은 IoT시장을 잡기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oT가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IoT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25년에 최소 3조5000억달러에서 최대 11조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oT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핵심이다. IoT기기가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통신 모듈의 성능이 필수적이다. 웨어러블은 물론 자동차·주택 등 향후 대부분 사업분야에 IoT가 접목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자업계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IoT시대에 강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사가 주력하고 있는 통신·카메라 모듈, 센서 등의 부가가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기 모델이 스마트홈에 적용되는 각종 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기

올해 HDD모터 사업 분사 등 사업구조를 재편한 삼성전기는 자동차부품과 IoT 등 신사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기는 통신·카메라 등 디지털 모듈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각종 센서, 자동차 부품 등의 역량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각종 모터, 카메라 모듈,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LG이노텍은 자동차 전장부품까지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LG이노텍의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은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전망된다. LG전자(대형모터)와 LG디스플레이(차량용디스플레이), LG화학(배터리) 등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사업을 점찍고 있다.

박원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IoT 기기 생산업체들은 종합 부품회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 SUHD TV, 독일서 올해 최고의 TV 선정

소비자연맹 평가 6년 연속
유럽국 연맹지서도 최고점



독일의 소비자 연맹지 ‘테스트(TEST)’지가 2015년 최고의 TV로 선정한 삼성 SUHD TV(모델명: UE55JS9090). /삼성전자

삼성 SUHD TV가 독일 소비자 연맹 평가에서 2015년 최고의 TV로 선정되며 6년 연속 TV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삼성 TV는 북미와 유럽의 주요 10개국 등 총 11개국에서 소비자 연맹지가 뽑은 올해 TV 신제품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다.

19일 독일 소비자 연맹지 ‘테스트(Test)’에 따르면 삼성 SUHD TV(모델명: UE55JS9090)를 전체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주요 TV 제조사 6곳에서 올해 출시된 총 36개 TV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삼성 TV는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자리를 독식했다.

독일 소비자 연맹 ‘스티바(StiWA)’는 독일에서 저명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소비자기관이다. 이 기관이 발행하는 ‘테스트’지는 독일 가전시장에서 소비자 구매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로 꼽힌다.

이번 평가에서 ‘테스트’지는 삼성 SUHD TV에 대해 “화면 재현 능력이 뛰어나고 사운드 또한 일반 TV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능을 지녔다”고 호평했다.

한편 삼성 SUHD TV는 지난 6월 미국 컨슈머리포트 TV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았으며,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10개 국가 소비자 연맹지로부터 올해 출시된 제품 중 최고 점수를 받으며 TV 평가 1위에 올랐다.

성일경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유럽의 주요 연맹지 평가에서 삼성 SUHD TV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삼성 SUHD TV의 뛰어난 화질과 제품력으로 글로벌 TV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점등광고를 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LG전자, 여의도서 ‘올레드’ 점등광고

LG전자는 올레드 TV를 적극 알리기 위해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인 LG트윈타워에서 이색 점등광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21일부터 올 연말까지 주 4회,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실내의 사무실 조명을 이용해 LG트윈타워 서관 건물 전면에 ‘OLED’ 문자를 형상화해 노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한강 변에 위치해 여러 방향에서 노출이 잘 되는 LG트윈타워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OLED’ 글자를 형상화한 점등광고를 통해 LG 올레드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OLED’ 형상화에 필요한 조명 외에는 모두 소등하게 돼 임직원들의 야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LG트윈타워에서 전략 스마트폰 명칭인 ‘G’, ‘G3’ 등의 문자를 이용해 점등광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정석 LG전자 HE사업본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 상무는 “다양하면서도 이색적인 기회를 마련해 ‘올레드 TV=LG’ 이미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마시멜로 탑재 ‘넥서스 5X’ 출시



LG전자 모델이 휴대폰 매장에서 20일 출시되는 ‘넥서스 5X’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가 구글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 ‘마시멜로(Marshmallow)’를 탑재한 ‘넥서스 5X’를 국내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 20일 출시한다. 출고가는 16GB버전 50만8200원, 32GB버전 56만8700원이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2가지다.

‘넥서스 5X’는 2012년 ‘넥서스4’, 2013년 ‘넥서스5’에 이어 구글과의 세 번째 합작품이다. 20일부터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도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LG전자는 ‘넥서스5X’에 500만 화소 전면카메라와 ‘LG G4’와 동급의 이미지센서를 내장한 1230만 화소 후면카메라를 적용했다. 카메라 UX(사용자경험)도 대폭 강화해, 4K(풀HD 해상도의 4배) 동영상 촬영 기능과 초당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촬영 기능을 지원한다. 또 최근 출시된 디바이스에 속속 탑재되고 있는 ‘USB C타입 포트’를 적용해 연결 편의성을 높였다. 보급형 제품임에도 지문인식기능을 탑재해 보안성도 한층 강화됐다. /양성운 기자 ysw@

SKC 자회사 ‘바이오랜드’, 용암해수공장 착공

SKC의 자회사인 바이오랜드(대표 정찬복)는 19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사업단지에서 용암해수 화장품원료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정 대표와 김병호 용암해수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바이오랜드 제주공장은 제주 용암해수를 가공해 화장품 정제수와 제주특산 추출물을 생산하게 된다.

회사는 3100㎡(약 1000평) 부지에 60억원을 투자해 내년 1분기 준공할 예정이다. 연간 용암해수 취수량은 약 500톤에 규모다.

바이오랜드는 제주 천연물 상용화 관련 특허 보유와 함께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제주 용암해수 화장품 사업권자’로 선정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아이폰6S '불티'… 이통 3사, 예판 조기 마감

물량 소진·주문 폭주
추가 모집 앞당겨 진행
'로즈골드' 반응 뜨거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9일 애플 아이폰6S·6S플러스 예약 판매를 조기 마감했다.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모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출고가가 다소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S와 아이폰 6S 플러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준비한 물량 소진과 주문폭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치 이상이었다.

SK텔레콤은 23일 개통 가능한 1차 예약고객과 24일 개통 가능한 2차 예약고객이 예약가입 30분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2차 판매의 구체적인 수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약 5만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후 3차 판매는 22일까지 수량과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이날 오전 9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1분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넘긴 데 이어 10분도 지나지 않아 1차로 준비한 5만대를 다 팔고 온라인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 KT는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아이폰6S

온라인 예약 판매를 재개했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계속 판매를 이어갔다.

KT는 1만명 한정으로 기존 자사 가입자가 사고 싶은 아이폰의 모델명, 용량, 색상 정도를 입력해 '##5656'로 문자를 보내면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2초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5만대를 소진하는 데 30분 정도는 걸릴 줄 알았는데 반응이 더 뜨겁다"며 "아이폰 전 모델을 출시한 국내 유일의 통신사로서 고객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폰6S 로즈골드 색상에 특히 소비자 관심이 집중됐다"며 "다양한 혜택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도 23일인 출시 당일에 개통을 할 수 있는 1차 예약 가입자 모집이 5분만에 마감됐으며 당초 정오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추가 예약 가입자 모집을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이폰6S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이폰 시리즈는 워낙 마니아들이 많아 예약가입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약가입자가 모두 실제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 신청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반응이 좋은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업로고 보여주는 'IPCC 비주얼링' 출시

LGU+, 통화목적 사전 제공

LG유플러스는 기업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 고객의 스마트폰 화면에 기업의 로고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상 통화 연결 서비스 'IPCC(IP-Based Contact Center) 비주얼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IPCC 비주얼링은 통화 연결 중에 기업 로고와 같은 직관적 이미지로 통화 목적을 전달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통화 연결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기업은 통화연결 이미지를 통한 기업 브랜드 홍보는 물론 상담안내, 배송안내, 계약 갱신 안내 등의 전화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다.

현재 NH농협손해보험 등 대형 금융권 상담센터가 사전 가입한 상태며, IPCC 비주얼링 서비스는 신규 또는 기존 고객 모두 신청(가입센터 1833-5353) 가능하다.



LG유플러스 모델들이 'IPCC 비주얼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IPCC 비주얼링 출시를 맞아 12월 말까지 신규회선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비주얼링 서비스를 3개월 간 무료 제공한다. 또 기업 내 센터장 또는 상담사들이 서비스 시연 요청만 해도 기업당 영화 상품권 10매를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정문경 기자

SKT 'T전화' 가입자 700만명 돌파

SK텔레콤이 지난해 2월 출시한 'T전화' 가입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출시한 스마트폰 구매자 중 85% 이상이 T전화를 선택하고, T전화 서비스 이용횟수가 하루 6600만건을 넘어섰다.

T전화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꾸준히 기능을 개선해왔다. 최대 30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그룹통화' 기능과 통화 중에 상대방과 사진, 문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공유' 기능은 T전화가 자랑하는 대표 기능이다.

특정 번호를 선택해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자동 통화녹음' 기능도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불편했던 사용자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

자동 전화번호 검색 기능인 'T 114'는 250만 이상의 번호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조응태 SK텔레콤 상품기획본부장은 "T전화 가입자가 700만을 돌파하기까지 출시 20개월 동안 스팸정보, 전화번호 검색 등 사용자들의 통화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뿐 아니라 외부 앱서비스 연동 등 통화 기능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확인하고 반영해 왔다"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받은 사랑과 조언을 바탕으로 T전화를 고객 생활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모바일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한화 방산 3사, 차세대 종합 솔루션 선보여

'서울 ADEX 2015' 참가
155㎜ K-9 자주포 등 전시

한화그룹 방산 3사(한화, 한화테크윈, 한화탈레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5)'에 참가한다.

사측에 따르면 서울 ADEX 2015는 세계 32개국 386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부터 한화와 더불어 한화테크윈와 한화탈레스도 새로운 한화그룹의 일원으로서 각 사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지난 6월 말 한화테크윈과 한화탈레스의 인수를 마무리한 그룹은 기존 한화의 유도무기와 정밀탄약체계에, 한화테크윈의 항공기·함정용 엔진, 자주포 등의 플랫폼과 한화탈레스의 항공전자, 레이더, 감시정찰분야와 같은 방산전자 사업을 아우르며 '탐지/식별-기동/발사-타격'에 이르는 종합 방산 솔루션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 ADEX 2015 전시장에 설치된 한화그룹 방산3사 부스.

한화그룹 방산 3사는 '먼저 보고 신속판단, 정밀 타격하는' 전장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방위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선보임으로써 방산업계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알리고자 'ADEX 2015' 참가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230㎜급 다연장 천무 등의 유도무기 체계, 155㎜ 사거리 연장탄, 성능개량형 81㎜ 박격포탄, 2.75인치 한국형 로켓탄 등의 정밀탄약체계, 수중탐색용 자율무인잠수정, 폭발물 제거로봇 등의 무인체계분야, 수리온(한국형 헬기), T/FA-50(한국형 고등훈련기/경공격기) 등의 비행조종계통, 유압계통, 연료계통 등의 핵심 구성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참여 가능 품목의 일부(유압계통, 착륙계통, 연료계통)도 소개한다.

또 지난 12일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만큼, 유도무기분야의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테크윈은 T-50/FA-50에 장착되는 F-404엔진, 한국형 수리온 헬기에 장착되는 KUH 엔진 등의 다양한 가스터빈엔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155㎜ K-9 자주포, 로봇형 탄약운반장갑차 K10 등도 전시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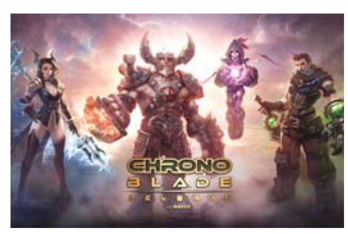
모바일 액션RPG '크로노블레이드' 업데이트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크로노블레이드 with NAVER(이하 크로노블레이드, 개발사 엔웨이)'에 한계돌파 업데이트를 19일 실시했다.

한계돌파 업데이트는 기존보다 더 강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둔 업데이트로, 신규 룬(영웅, 장비 등 성장에 도움을 주는 보석), 아이템 진화 시스템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추가한 '레어 룬'은 적에게 입힌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하거나, 자신이 받은 피해를 흡수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특히 레어 룬은 일반 룬과 비교해 전투력이 최대 2배 가까이 높아 소장 가치가 높다.

아이템 진화 시스템은 강화를 완료한 아이템에 특수 진화 재료를 사용하면 새로운 능력이 추가되는 시스템이다. 총 4종의 특수 진화 재료는 요일 던전(요일별로 입장할 수 있는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넷마블은 액세서리에 룬 소켓을 1개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 '소울 크리스탈'과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가하고, 다가오는 할로윈을 맞아 캐릭터별 특별 의상 아이템을 업데이트했다.

/정문경 기자

“주주위해 수익절반 배당”… NH증권의 새 실험

NH투자증권

주주우선 경영에 업계 촉각 업계 유일 통상임금 타결 등 통합 시너지 본격화 기대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증권업계 1위(자기자본 기준)인 NH투자증권이 파격적인 실험으로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해 말 합병을 거쳐 초대형 증권사로 탈바꿈한 NH투자증권이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올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배당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영자는 이 투자자들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업계에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선 유일하게 노사가 하나된 마음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타결,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합병 후 첫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액 비중)을 50% 이상으로 책정해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배경주 상무는 “과거 LG투자증권과 우리증권 간 합병(옛 우리투자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증권) 후 1년 6개월이 걸린 노조통합 등 소요 기간이 이번에는 6개월 이상 단축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며 “그룹 전략상 고배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통합에 따른 명예퇴직과 전산통합 등 모든 통합 관련 비용을 지난 2·4분기까지 모두 반영했다. 합병으로 떠안은 부실기업에 대한 충당금도 모두 쌓아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3·4분기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NH투자증권의 3·4분기까지 순이익이 23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상반기에 229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합병 관련 비용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은 1617억원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최근 2개 노동조합과 협의해 11월 말까지 임금과 인사 제도를 일원화하고 12월 말까지 노조 통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도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타결을 지었다. 전산통합은 이미 지난 6월 끝냈다.

배 상무는 “내년 본격적인 성장을 추진하고자 4·4분기에는 그룹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헤지펀드 진출을 위해 연내 인가를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고 올해 광화문, 부산, 분당 등 5곳에 개설한 그룹 내 복합점포를 내년에는 대거 확대할 방침이다.

헤지 펀드 설정 목표금액은 3000억원 규모로 국내 단일 헤지펀드 중 최대가 될 전망이다.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시황에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현재 시장은 삼성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1~5월 문을 연 농협금융 복합점포 4곳의 총자산은 약 6조5000억원(7월말 기준) 늘었다. 1억원 이상을 맡긴 고객 수도 1500명 이상 늘었다. 비슷한 시기에 복합점포 경쟁에 나선 다른 금융그룹이나 개별은행보다 앞선다.

시장에서는 NH투자증권과의 시너지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옛 우리투자증권과 옛 NH농협증권이 작년 말 합병해 탄생한 대형 증권사다. NH농협금융지주가 4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국내 ‘100대 주식부자’에 새 얼굴 20명 합류

신동국·이웅열·양용진·홍석현 순위 ‘껑충’

올해 들어 국내 100대 주식부자 순위에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20명이 새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 100대 주식부자의 상장주식 가치는 107조1056억원으로 1년 전의 82조4343억원보다 24조6714억원(29.9%) 불어났다.

주식자산 순위 100위권에 새로 진입한 부호는 20명에 달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주식자산이 1조1481억원으로 1년 전 1932억원의 5.9배로 늘면서 주식부호 순위가 113위에서 22위로 껑충 뛰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도 상장주식 자산이 5606억원으로 3604억원(180%) 증가해 107위에서 47위로 올라섰다.

양용진 코미팜 회장의 상장주식 자산은 4129억원으로 1년 만에 2536억원(159.2%) 늘어나면서 139위이던 순위가 60위로 높아졌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올해 상장 주식자산이 5606억원으로 3604억원(180%) 증가해 순위가 107위에서 47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는 3570억원의 주식자산으로 73위에 진입했고, 2616억원의 주식자산을 보유한 정상수 파마리서치프로덕션 대표이사도 단숨에 97위를 차지했다. 정성이 이노션 고문은 보유 상장주식이 95억원에서 3351억원으로 불어 순위가 1445위에서 78위로 올라섰다.

허진수 파리크라상 전무(84위·3147억원)와 허희수 비알코리아 전무(85위·3139억원), 허영인 SPC그룹 회장(100위·2544억원) 등도 10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한편 상장주식 부자 1위는 11조4845억원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1년 사이 주식자산이 1조3738억원(13.6%) 늘어났다. 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3조1134억원(47.5%) 증가한 9조6710억원의 주식자산으로 2위를 지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년 사이 5조1289억원(145.3%) 늘어난 8조6598억원의 주식자산을 보유해 순위가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조8513억원으로 주식부자 4위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조4319억원으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3조4152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2조8955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각각 2조5584억원),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2조5478억원) 등이 주식부자 10위에 들었다. /김보배 기자 bobae@



대신증권은 온라인으로 연금저축계좌,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펀드(근로자재산형성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상품 1석3조 이벤트’를 개최한다. /대신증권

“절세상품 가입하고 혜택 챙기세요”

대신증권

‘1석3조 이벤트’ 개최 건강식품 등 경품 증정

대신증권은 온라인으로 연금저축계좌,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펀드(근로자재산형성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상품 1석3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투자자들이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장펀드와 재형펀드는 올해 말로 판매가 종료되는 상품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높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절세 필수상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세 상품 중 하나를 월 10만원, 1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거치식으로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 금액에 따라 스마트밴드, 생활건강식품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경품을 모든 가입 고객에게 증정한다. 대신증권 신규고객은 추가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적립식·거치식 상품을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적립식 가입금액의 100배 이내, 거치식 매수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 3.5%의 금리를 제공하는 만기 3개월짜리 특판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기회를 제공한다.

진수민 스마트비즈니스부장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절세라는 키워드는 재테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이벤트는 투자자들이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IBK경제硏

中企 37.9% “금융대출 안 써”

지난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차입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과 대출한도 확대, 만기 연장 용이 등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19일 올 상반기 중소기업 4500곳을 대상으로 ‘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차입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난 2013년에 비해 금리 하락, 대출한도 확대, 만기연장 용이, 상품가입 요구 감소 등 차입여건이 완화된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은행권의 담보요구는 2013년에 비해 지난해 더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외부차입금 잔액이 있는냐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2.1%,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집계됐다. 외부차입금이 없는 이유로는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해서’(83.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김보배 기자

KB금융지주 사장 내정자 김옥찬은…

"업무능력 겸비 덕장"

1982년 입행 30여년 근무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이 KB금융지주호(號)의 사장으로 돌아온다.

국민은행을 떠난지 1년 여 만이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사대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국민은행에 입행해 2013년 행장대행에 오르기까지 30여년을 은행에서 근무한 금융전문가다. 재무관리본부장과 부행장을 역임해 기획과 리스크관리 등에 능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은 국민은행의 CFO로 다년간 재임하는 동안 경영기획과 재무관리 역량을 인정받았고 현재 SGI서울보증의 CEO를 맡아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어 온 점을 선임 이유로 밝혔다.

금융권과 내부에서는 '금융4대천황' 가운데 하나인 KB금융 회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업무능력과 덕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한다.

조직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차기 수장에 거론될 정도로 은행 안팎의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라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그의 오랜 경험이 합쳐진다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환경이 저금리,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여의 공백기를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이 국민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男·20대, 대포통장 사기 '취약'

家長·취준생이 범행 대상
20~50대 男 절반 차지

남성이 여성보다 대포통장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대포통장 명의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취업준비생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13명(1만4629건)이 등록됐다. 이 중 2건 이상은 1493명(3203건)으로 11.5%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65.6%(8476명)로 여성(34.3%, 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남성이 66.9%(999명)로 여성(33%, 494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9%(3471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3.1%, 2982명), 30대(22.9%, 2963명), 50대(17.2%, 2218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통장을 양도하려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면서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 20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이 따른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 부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와 해소사유가 발생 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할 수 있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피해예방과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 26일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이 2000만원 상당으로 S&P500선물, NASDAQ100 선물, 유로 FX 선물 등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달러결제 상품을 거래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한금융투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로렌조오일' 지원

생명보험재단

30명 환우에 8000만원 상당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특수식이 지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 강기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을 비롯해 부신백질이영양증(ALD), 뮤코다당증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이 참석했다.

부신백질이영양증은 몸 안에서 분해되지 못한 지방산이 뇌로 흘러들어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희귀질환이다. 보통 인구 4만5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로 각종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서 보통 2년 만에 식물인간이 돼 사망에 이르지만 아직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다만 환자들은 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희망으로 특수식이인 '로렌조오일'을 복용하고 있다.

로렌조오일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1병에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 매월 3~4병을 복용해야하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51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특수식이를 지원했다. 올해는 30명의 환우에게 8000만원 상당의 로렌조오일과 메디푸드를 지원한다.

유석쟁 전무는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특수식이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증상개선과 건강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7대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보배 기자



(왼쪽부터)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배순태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우회 회장, 최일웅 뮤코다당증 환우회 회장, 강기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이 19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서 열린 로렌조오일 지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조치 대상자 '법인'이면 실명 공개
피조치자 '방어권' '알권리' 보장

다음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 판결문'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증선위는 현재도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데다 사실 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대기업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협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중 게시 예정인 자조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증선위가 잘잘못을 판단해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라며 "제재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다소 추정적인 부분이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를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듀얼도 자신있다

언제,
어디서든

800mm 초대형 책상용 스탠드
자유로운 각도 조절



EMC Registered

No.1

국내 1위, LED조명의 세계적 名家 프리즘에서 만든
800mm 초대형 프로페셔널 스탠드「브로드윙」

Venture for Tomorrow 내일을 향한 희망에너지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세계속의 경기도

LSP-9000 DC24V/0.8A/20W

학습 목적에 따라 3가지 빛컬러 변화가능 & 컬러별 3단계 조도조절!!

Cool(수리) 색온도 : 6500K ~ 6900K

논리적 사고 및 수리적 계산영역
파란빛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져
뇌와 사고속도를 높여주어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Bright(언어) 색온도 : 4500K ~ 4900K

언어 및 암기의 영역
주황빛은 언어 및 암기영역으로
어학 학습과 같은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Warm(창의력) 색온도 : 2600K ~ 2900K

창의, 예술 및 휴식의 영역
붉은빛은 창의, 예술 및 휴식 영역으로 정신적 피로를
덜 느끼며 상상력이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드윙 알아보기

※ 학생, 연구원, 설계실, CEO 책장 등 다양한 분야 다목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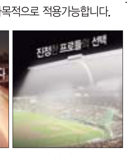


전문가들의 선택



학습 · 업무용


넓은 시야 확보


스케일의 차별화

어떠한 책상에도 설치가능

다양한 설치 방식


클램프 방식 | 볼트 설치 방식 1 | 볼트 설치 방식 2

3분기 상가분양 '숨고르기'… 분양가도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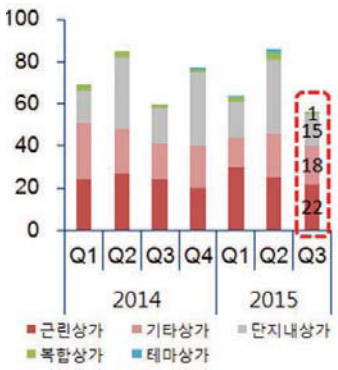
전국 56곳 분양 그쳐
전 분기대비 35% 감소
평균 분양가 7.8%↓

3·4분기 상가분양이 계절적인 요인과 공급 감소 등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마곡·위례 등 인기 지역의 상가 공급도 줄면서 전체적인 분양가도 떨어졌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4분기 중 전국 56개 상가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 분기(86개)에 비해 35%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곳보다도 6.7%(4개)가 줄었다. 저금리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 인기는 여전했지만 여름 비수기와 추석 연휴 등이 맞물려 분양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내 상가 공급도 주춤한 상태다. 3·4분기에 공급된 LH 단지 내 상가는 33개 점포(특별공급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개 점포의 절반도 못

유형별 분양물량 추이



단위:단지 /자료:부동산114

미치고 있다. 3·4분기 지역별 공급 물량은 수도권 비중이 높다. 56개 상가 중 39개 상가가 수도권에서 공급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마곡과 세곡 등 오피스텔·새 아파트 공급 지역에 물량이 집중됐고 그 외 경기도 시흥 목감, 하남 미사 등에서 상가 공급이 진행 중이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경남, 충남 등에서 17개 상가가 분양을 시작했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가 22개로 전체 물량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근린상가는 주거지 인근 생활편의시설의 집합체로 음식점과 학원, 병원 등으로 구성된 5~10층의 상가다.

이번 분기에는 위례와 파주운정, 하남미사, 대구,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급됐으며 기타상가는 주로 오피스텔과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상층부에 둔 상가로 18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그 외 아파트 단지내상가 15개, 복합상가 1개 단지가 공급됐다.

3·4분기 평균 분양가는 3.3㎡당 2417만원으로 전 분기 2621만원보다 7.8% 가량 떨어졌다. 전 분기 마곡과 위례 등지에서 3000만~4000만원에 상가가 공급된 반면 올해 3·4분기는 원흥과 목감, 배곧 등지에서 비교적 낮은 3000만원 미만 대에 분양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가 297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 기타 상가가 2210만원, 복합상가가 2150만원, 단지내상가 1871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상가 공급 감소로 평균 분양가가 하락한 가운데 강남과 서초, 위례 등은 3000만원 후반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평균 분양가 대비 높은 분양가 수준을 형성했다.

LH 단지 내 상가는 7개 단지에서 33개 점포(특별공급 제외)가 공급됐다. 수도권은 경기 평택소사벌과 시흥목감에서 4개 단지가 공급됐고 지방은 경남혁신도시와 대구에서 3개 단지가 입찰에 나섰다. 33개 점포가 139억 2351만원 가량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단지별 평균 낙찰가는 지방이 비교적 높았다. 경남혁신A8가 42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테크노 A-2가 365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 낙찰가율은 182%이며 단지별로는 경남혁신A8이 216%, 평택소사벌B-5가 193%, 시흥목감 B6가 189%로 나타났다.

당분기 공급된 LH 단지 내 상가 중 높은 인기를 보였던 경남혁신A8은 진주혁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소형 공공분양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공급 4개 점포 모두 공급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고 이 중 103호는 6억 2890만원에 낙찰돼 가장 높은 낙찰률인 227%를 기록했다. 101호는 가장 높은 낙찰가격인 6억515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한편 4·4분기는 아파트 공급 증가에 따른 분양 시장 열기가 상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하남미사와 광교 등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분기 주춤했던 LH 단지 내 상가 공급도 증가해 10월은 대전과 경남 등 지방 중심, 11월은 구리갈매와 화성향남2, 12월은 하남미사와 화성동탄2지구 등에서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아파트 건설사, 지방서 '브랜드타운' 붐

랜드마크 이미지 청약 인기
동탄신도시·거제·경산 등
하반기 대규모 물량 공세

지방 부동산시장에 브랜드타운 조성 바람이 불고 있다. 브랜드타운은 동일한 아파트 브랜드가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브랜드타운 아파트는 분양 과정에서 쌓인 정보를 활용 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는 단지를 조성해 공급이 거듭될 수록 분양성적도 좋은 편이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에서 44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는 지난해 공급된 1차와 2차분이 각각 1.7대 1, 1.5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란 이미지가 굳어지고 브랜드와 지역 개발 호재 등이 부각되면서 지난 4월 공급된 3차 물량은 1순위에서 평균 4.15대 1로 마감, 계약 5일 만에 완판됐다. 이에 힘입어 하반기 지방에서도 대규모 물량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 110번지(상동4지구 A3블록) 일원에 '힐스테이트 거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25층, 11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84~142㎡ 1041가구로 조성된다. 거제의 중심지인 고현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의 거제중앙로에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북 경산시에서 '펜타힐즈 더샵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펜타힐즈 C2-1블록에 지

10월 지방 브랜드타운 분양 현황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원주 단구동 한신휴플러스	59·74·84	724
동탄 2신도시 C-5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73~86	990
동탄 2신도시 C-8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73~86	951
동탄 2신도시 A-98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	85초과	689
세종시 3-1생활권 M6블록	세종 중흥S-클래스 11차	84~109	1015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	펜타힐즈 더샵 2차	77~108	791
전주 에코시티 4블록	에코시티 데시앙	59~84	720
전주 에코시티 5블록		59~104	662
경남 거제시 상동동	힐스테이트 거제	84~142	1041

*표시는 11월 분양

하 2층~지상 35층, 4개동, 791가구(전용 77~108㎡) 규모로 들어선다.

지난해 공급된 1차 물량과 합쳐 2487가구에 이르는 더샵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전주 에코시티에서 '에코시티 데시앙'을 분양한다. 4블록 720가구(전용 59~84㎡), 5블록 662가구(전용 59~104㎡) 2개 블록 1382가구 규모다. 태영은 이달 공급을 시작으로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분양 아파트 물량의 절반에 이르는 6개 이상의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4블록과 5블록 사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며 축구장 28개 규모의 에코시티 최대 규모 중앙공원인 센트럴파크(약 20만㎡)와 맞닿아 있다.

한신공영은 이달 원주시 단구동 1457-3번지 일대에 '원주 단구동 한신휴플러스'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724가구 규모다. 2006년 입주한 '개운 한신휴플러스' 1, 2차(1240가구)와 함께 약 2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한신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4베이 위주의 혁신설계와 드레스룸이 마련되는 등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꾸며진다. 단지 인근에 원주중학교와 원주여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 원주시를 대표하는 학군이 몰려 있으며 학원가 밀집지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반도건설은 11월 C5, C8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C5블록, 990가구)·8.0(C8블록, 951가구) 등 1941가구, A98블록에서 9.0(689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1만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중흥건설의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이달 세종시 3-1생활권 M6 블록에 '세종 중흥 S-클래스 11차' 공급을 준비 중이다.

중흥토건은 '에코시티', '센텀시티' 등 세종시 분양 물량만 1만가구를 넘어서며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전용면적 84~109㎡, 지하 1층~ 최고 29층, 23개 동 1015가구 규모다. /박상길 기자



인천가좌 두산위브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두산건설

주말 1만4000명 견본주택 운집

두산건설 '인천가좌 두산위브'

두산건설은 지난 16일부터 주말 3일 동안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가좌 두산위브'의 모델하우스에 1만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가좌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51~84㎡ 175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데다 일반분양 중 646가구가 전용 69㎡ 이하 소형으로만 이뤄져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청약통장과는 별개로 내집마련신청서 접수도 받고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삼성물산, 침대청소 등 입주서비스 성료

삼성물산은 최근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에서 진행한 '래미안 헤스티아 체험서비스'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 고객 멤버십 회원 중 100명을 추첨해 '래미안 헤스티아' 서비스를 제공했다.

래미안 헤스티아는 삼성물산이 2005년 도입한 입주민 만족서비스다. 래미안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뿐만 아니라 문화강좌와 교육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객들이 침대청소와 공간케어 서비스를 체험했다. /박상길 기자



래미안 헤스티아 서비스 가운데 침대 청소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물산

사라진 신격호… 신·신부자의 비밀외출

<신격호·신동주>

표면상 사유 "병원행"… 롯데측 행선지에 의혹
소송도 진행… 신동빈에 조직적 반격 업계 촉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9일 오후 비밀리에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동반외출에 나섰다.

이에 따라 SDJ코퍼레이션을 앞세워 일단락된 듯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하는데 성공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아버지와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40분 사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휠체어에 태운 채 호텔을 벗어났다. 롯데그룹측은 즉각 외출한 것을 확인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과 총괄회장의 행선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알리지 않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행기에 태워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로 향한 바 있다. 당시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동반 외출 이후 신동빈 회장의 해임이라는 후폭풍이 일었던 만큼 롯데그룹은 이번 외출의 행선지와 목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면상 외출은 병원행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그룹측은 "병원으로 향한 것이 단순 건강검진 차원이 아니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의도된 목적에 따라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고령의 총괄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안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롯데호텔 34층을 직접관리해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다. 주요 사업 목적은 전자·생활제품 무역업과 도소매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롯데그룹 복귀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롯데그룹측에서는 이 회사를 그룹과 무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개인회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일 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3건을 준비해가며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의 측근인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연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에 '신동빈 저격수'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민 고문은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 실패를 덮으려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중국 사업 실패 보전을 위해 일본 롯데의 유보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고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도 받아야겠지만 그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외에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우리나라 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사건은 28일 첫 심리가 이뤄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영자료를 요구해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실패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차량정비 셀프족 위한 용품매장 론칭

롯데마트 모토맥스

정보제공·체험서비스 더해 차별화된 상품 확대할 것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스스로 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용품 DIY(Do-It-Yourself)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정비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교환·보수용품, 세차용품, 장착용품 등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가량 신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마트측은 차량용품 DIY족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공임비·수리비 등의 증가와 블로그·유투브 등 인터넷을 통해 정비지식이 공유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차량용품 DIY족이 늘어남에 따라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11월 차량용품 매장인



자동차용품 전문점 모터맥스 매장 모습. /롯데마트

'모토맥스' 잠실점(1호점)을 론칭했다. 모토맥스는 현재 전국 25개 점포에서 운영중이다.

모토맥스는 카시트·매트, 방향·탈취제부터 교환·보수용품 등 10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함께 차량용품 전문지식이 없는 고객들을 위한 정보제공까지 겸하고 있다. 실제 차량용품 교체 전 직접 시연할 수 있는 테스트 서비스도 가능하다. 와이퍼 교체를 해볼 수 있는 와이퍼 테스터, 차량용 왁스의 품질을 체험할 수 있는 왁스 테스터, 연료첨가제 효과에 대해 알려주는 연료첨가제 시연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보제공에 체험형 서비스를 더한 모토맥스는 매년 일반 매장보다 2배 이상 높은 20% 가량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모토맥스는 차량용품 DIY·키덜트 악세서리 등 기존 차량용품 매장과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가을철에 셀프 세차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을철 세차 용품 기획전'을 열어 28일까지 전점에서 왁스, 클리너, 광택제 등 세차 관련 전품목을 정상가 대비 20% 할인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김장철, 김치냉장고 준비하셨나요?" 9일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모델들이 김치냉장고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30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에서 김치냉장고를 10~25%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11번가, 레노버 패블릿 '팹플러스' 단독 출시

6.8인치·멀티미디어 특화

11번가는 레노버의 첫 패블릿(폰+태블릿) 제품인 '팹플러스'(PHAB Plus)를 20일 온라인몰에서 단독 출시한다.

19일 11번가에 따르면 팹플러스의 가격은 비슷한 사양 제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39만9000원이다.

팹플러스는 폰과 태블릿의 장점을 결합한 6.8인치 대화면 멀티미디어폰이다. 공식 모델인 걸그룹 EXID의 '하니'가 추천하는 패블릿으로 소개된다.

팹플러스의 특징으로는 풀HD(고해상도) 대화면, 돌비 애트모스 등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기능이다. 299g의 초경량, 7.6mm의 초슬림 사이즈를 자랑한다.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태블릿(레노버 탭2 A7-10)를,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액정보호필름과 SK텔레콤용 유심칩 또는



차량용거치대를 제공한다. 또 11번가 상품페이지에 팹플러스의 포토상품평을 등록하는 고객을 추첨해 하니의 친필 사인이 담긴 팹플러스와 태블릿(씽크패드 8) 등을 증정한다.

이치훈 11번가 디지털사업부장은 "11번가는 가성비 우수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레노버가 처음 선보이는 이번 패블릿 역시 온라인몰 단독으로 획기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만큼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위메프, 패션 PB브랜드 '레드심플' 선봬

위메프는 패션 PB(자체브랜드) '레드심플(REDsimple)'을 론칭한다고 19일 밝혔다.

레드심플은 위메프의 첫 패션 PB브랜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SIMPLE IS GOOD'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룩 브랜드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레드심플은 론칭을 기념해 베이직 아이템부터 '놈코어'와 '빈티지' 무드를 담은 아이템 등을 가을·겨울(F/W) 시즌 트렌드 스타일로 제안하고 시즌 필수 아이템 60여개 상품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100여개 이상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레드심플은 가격대 역시 저렴하게 책정하고 론칭을 기념해 할인이벤트도 마련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트렌치코드를 1만8900원에 50장 한정 판매하고 20일에는 롱



위메프의 패션 PB '레드심플'에서 판매되는 의류 상품 /위메프

가디건을 2만900원에, 22일에는 항공점퍼를 특가 4만3900원에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6만원 vs 30만원… "의자 품질 차이 없다"

여성소비자硏, 10개 업체 가정용 의자 가격대별 평가

내구성 테스트 대부분 '적합'
"앉아보고 구입, 가장 좋아"

6만원대와 30만원대 가정용 의자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여소연)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진행한 내구성·내충격성 테스트에서 가정용 의자 대부분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능성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이뤄졌다.

시험 대상 제품은 올해 5월 포털사이트 쇼핑 검색을 통해 판매율이 높았던 보루네오가구, 에넥스, GAMC 등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이다. 테스트를 받은 10개 제품의 가격대는 최저 6만에서 최고 30만원으로 5배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 차이에 따른 내구성과 내충격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테스트 항목은 강도·내구성 6개 항목, 내충격성 3개 항목 등 총 9개 항목으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여소연 측은 "의자는 사용자가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시 기능, 소재, 디자인, 사후서비스 보증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키와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는 안락함, 사용상의 피로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 사용자의 공간(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실제 사용(착석) 테스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채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타났다. 또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재의 원가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의자의 가격은 저렴한 반면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유럽과 국내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가격이 높았던 것.

고가 제품의 경우 자체 기술 개발과 성능 테스트로 비용 상승 요인도 가격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시험을 두고 가구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와 만족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품질에 대한 검증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건이 되는 몇몇 기업들에서는 유럽·북미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KS 기준을 상회하는 기술력을 지닌 브랜드가 많은 만큼 품질테스트를 보다 세분화해 각 제품의 특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 **가정용 의자 구입 주의사항**
> - 용도·사용자 체형에 맞는 제품 구입 (실물 확인 후 구입 권장)
> - 다양한 채널서 가격 비교 후 구입
> - 온라인 구매 시 제품설명과 상품정보 등 꼼꼼히 확인
> - A/S 기간 확인
> - 검증(KS인증 등)이 된 브랜드 구매



풀무원 '샐러드가든' 5종
용기형 제품…보관·편의 높여

풀무원식품은 샐러드 전용 용기를 도입해 제품의 보관과 편의성을 높인 '샐러드가든(Salad Garden)'을 19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용기에 샐러드 채소를 담아 제품의 손상을 줄이고 보관도 용이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대용량 제품 3종(프렌치스타일, 이탈리안스타일, 그릭스타일)과 소용량 제품 2종(뉴욕스타일, 파리스타일)으로 다양한 샐러드 채소류를 먹기 좋게 잘라 혼합했다.

대용량 제품 가격은 프렌치스타일 80g에 3000원, 이탈리안스타일 135g에 3300원, 그릭스타일 140g에 3400원이며, 소용량 제품 가격은 파리스타일 75g에 2350원, 뉴욕스타일 90g에 2350원이다. /정은미 기자

크린토피아 '다다익싼'
24일까지 최대 30% 할인

세탁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가 오는 24일까지 '다다익싼' 세일을 진행한다.

다다익싼 세일은 크린토피아의 세탁 서비스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세탁 접수량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1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10%, 2만원 이상 결제 시 20%, 3만원 이상 결제 시 30% 할인된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세탁량이 늘게 마련인데, 그만큼 커지는 고객의 세탁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다익싼' 이벤트를 고안하게 됐다"며, "세탁량이 늘어나는 만큼 할인폭도 커지는 '다다익싼' 세일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알뜰 세탁 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삼홍테크 '이누스 방수 비데 착'
20일 홈앤쇼핑서 선보여

비데전문 기업 삼홍테크가 오는 20일 홈앤쇼핑에서 탈 부착과 청소가 편리한 신제품 '이누스 방수 비데 착(모델명:IS-25)'을 선보인다.

이누스 방수 비데 착(着)은 기존 방수 비데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분리 부분을 자석 타입으로 업그레이드해 청소와 관리가 용이해진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캐치 플레이트(Catch Plate) 방식은 양변기 아래나 옆, 뒤에 직접 손으로 나사를 돌리고 조여서 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누스 방수 비데 착'은 손쉬운 자석 타입으로 비데를 고정시킴으로써 원할 때마다 분리해 청소할 수 있다. 가격은 21만 9000원이다. /유현희 기자

SK네트웍스, 면세점 유치 땐 2400억 투자

워커힐 수성·동대문 입찰 사활
지역·중소상인 상생프로그램도

SK네트웍스가 시내면세점 입찰을 위해 지역 중소 상생기금 24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과 동대문에 면세점을 유치할 경우 워커힐에 900억원, 동대문에 1500억원을 각각 배정해 지역 관광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과 동대문 주변 전통시장·지역소상공인과 상생프로그램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워커힐 면세점에는 2020년까지 5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전략이다. 워커힐면세점 고객은 지난해 방한한 유커의 18%가 방한했으며 전체 고객의 80%가 유커다. 유커 고객 비중이 높은 워커힐 면세점의 매출 신장률은 국내 면세점 평균 대비 2배에 달하는 46%에 이른다.

SK네트웍스는 리뉴얼 중인 워커힐면세점이 재오픈하면 매장 면적이 1만2384㎡(3746평)로 확대되며 2020년에는 1조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면세점 입지인 동대문은 지난해 서울시 관광 실태조사에서 명동을 제치고 외국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 1위에 오른 바 있다.

SK네트웍스 측은 "동대문은 매년 약 6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면세점이 하나도 없어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면세점 신설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면세점 입지로는 건물 지상 층에 33대의 대형버스 주차장을 자체 보유한 케레스타 빌딩을 입지로 선정했다. 총 7개 층에 1만6259㎡(4918평) 규모의 면세점이 조성된다.

특히 전체 매장의 50%를 K-패션관·K-Life관·K-kid관 등 국산품 전용 매장으로 구성하며 이 중 75%를 중소기업 제품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동대문의 관광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고 '선순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2020년에는 1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가을 제철 '사과'로 건강해지세요" 현대백화점은 19일 목동점 유플렉스 지하2층에 북유럽 프리미엄 주스 브랜드 '조앤더주스(JOE & THE JUICE)'를 오픈한다. '유럽의 스타벅스'로 유명한 '조앤더주스'는 사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스 메뉴와 샌드위치를 주문 즉시 현장에서 착즙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국내 2호점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첫 번째 매장이다. /현대백화점

고궁 달빛 아래 만나는 왕실의 사계

LG생활건강, 창경궁 야간관람서 미디어아트 전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내달 1일 창경궁 야간특별관람이 진행되는 동안 '후(后) 창경궁 달빛 아래서' 미디어아트 전시와 해금 공연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미디어아트 전시는 창경궁 명정전 행랑 안에서 '창경궁 달빛 아래서'라는 테마로 열린다. 이번 작품은 영상 미디어작가 박상화의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연출로 '창경궁의 아름다운 사계'의 모습과 왕실 여성들의 궁중 유물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해 특수 스크린에 영상으로 표현했다.

또한 창경궁 통명전 앞에서는 해금 연주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꽃별과 강은일, 단아하고 고운 소리로 사랑 받는 신날새, 다이나믹한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는 시아 등 총 4팀의 특별 국악 공연이 주말마다 펼쳐질 예정이다.



문진희 LG생활건강 CM.한방마케팅부문 부문장은 "이번 창경궁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샘표, 신입사원 공채… 내달 2일까지 접수

샘표(대표 박진선)가 2016년 공채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샘표는 이번 채용에서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 홍보, 연구개발,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분야를 모집한다.

성별, 종교, 학교, 학점, 외국어 점수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직무에 대한 열정이 높고 '겸손한 사람, 사심 없는 사람, 일에 몰두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우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입사지원서는 11월2일 오후 3시까지 샘표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sempio.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정은미 기자

가을 그린, 와인향에 취하다

골프시즌 관련 '와인' 화제

골프의 계절을 맞아 골프와 인연이 있는 와인이 화제다. 프로골퍼가 만든 와인부터 유명 와이너리를 모티브로한 와인까지 와인과 골프의 연관성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그렉노먼, 애니카 소렌스탐 등 유명 골퍼들이 직접 제조에 참여한 와인은 골퍼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렉 노먼은 호주 출신답게 호주에 그렉 노먼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를 설립하고 '그렉 노먼 와인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 노먼의 와인에는 자신의 닉네임인 백상어가 레이블을 장식하고 있어 골퍼라면 누구나 그가 와인을 제조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와이너리를 소유한 아놀드 파머도 자신의 이름을 붙인 '아놀드 파머 시리즈'를 내놨다. 그는 직접 와인 블렌딩(포도품종을 적절한 비율로 섞는 것)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니카 소렌스탐은 자신이 세운 최저타 기록을 와인명에 붙였다. 애니카 소렌스탐은 미국 웬트 와이너리와 함께 '애니카 59'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소렌스탐은 2001년 미국 애리조나주 문 밸리 컨트리클럽에서 59타를 기록해 여성 골퍼 최초로 60타의 벽을 넘어선 바 있다.

어니 엘스도 부친이 소유한 와이너리 스텔렌보쉬에를 통해 자신의 와인을 출시했다. 스텔렌보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와인 생산량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와이너리다. 덕분에 엘스는 남아공 와인의 개척자라는 닉네임까지 붙었다. 남아공은 전통적인 와인산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구세계는 물론 칠레, 미국 등 신세계 와인 가운데서도 입지가 약했다. 하지만 엘스의 지원으로 2010년 국내 수입량은 뉴질랜드를 제치기도 했다.



'18홀에 65타를 친다'고 해서 유명세를 얻은 1865.



온다로드

그렉노먼·애니카 소렌스탐 등 프로골퍼 직접 제조 와인 인기

1865 '18홀에 65타'로 유명세 국내 누적판매 300만병 돌파

지난해 국내에서 단일 브랜드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와인도 골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18홀에 65타를 친다'고 해서 유명세를 얻은 1865는 국내에 출시된지 11년만에 지난해 누적판매량 300만병을 돌파했다.

이 와인의 공식 수입원인 금양인터내셔널은 1865의 골프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얼짱 골퍼 최나연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골프 인기를 몰고왔던 박세리 역시 한국인 출신이 운영하는 와이너리 루 뒤몽에서 생산한 프랑스 와인 온다도로가 후원한 바 있다.

골프와 와인의 이야기에서 1865 못지않게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와인 중 하나가 '페폴리'다. 페폴리는 골프장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와인이다. 페폴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 중 하나로 꼽히는 페블비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와인이다. 실제로 페블비치 내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와인이기도 하다. 페폴리는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그레임 맥도웰, 어니 엘스, 필 미켈슨, 그레고리 아브레 등 유명 골퍼들이 즐겨 마신 와인으로도 유명하다.

골퍼가 아닌 골프용품으로 유명한 브랜드 캘러웨이도 와인 사업을 하고 있다. 엘리 캘러웨이는 브랜드 이름을 딴 캘러웨이 와인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으며 품종별로 까베르네 소비뇽, 멜로, 소비뇽블랑, 샤도네이 등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롯데주류의 '베린저'도 골프와 인연이 깊다. 베린저는 지난해 국내 유일의 LPGA 정규 투어 대회인 '2014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공식와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명품 쇼호스트 유난희 '미라클톡스' 모델 발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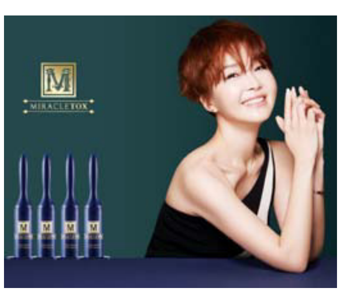
동안 침 안티에이징 브랜드 이달 말 CJ오쇼핑서 론칭

화장품 브랜드 '미라클톡스'의 모델로 쇼호스트 유난희가 발탁됐다.

국내 1호 홈쇼핑 쇼호스트 유난희는 그녀만의 제품가치에 중점을 둔 깐깐한 브랜드 선택기준과 남다른 감각과 안목으로 유명하다.

국내 신인 디자이너의 제품부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상품까지 판매하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쇼호스트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특징 등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며 신뢰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유난희가 모델인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는 미라클톡스가 유일하다.



미라클톡스 모델로 발탁된 국내 1호 쇼호스트 유난희. /미라클톡스

유난희는 제품 개발과정부터 임상 테스트까지 직접 참여, 홈쇼핑 방송에서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경험한 미라클톡스의 동안 침(tox) 효과와 스토리를 직접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미라클톡스 관계자는 "미라클톡스는 오랜 기간 쇼호스트로 활약하며 얻은 그녀만의 트렌드와 가치소비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녹아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며 "철저한 자리관리와 건강한 에너지로 20대 못지 않은 탄력있는 피부와 에너제틱한 삶을 살고 있는 유난희야 말로 미라클톡스 브랜드 모델로 적격"이라며 모델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미라클톡스는 이달 말 CJ오쇼핑에서 첫 론칭 방송을 앞두고 있다. 주름과 탄력을 개선해주는 '타임리와인드 톡스 앰플', 진정 보습 마스크 '타임리와인드 마스크', 피부 볼륨을 회복시켜주는 '타임리와인드 필 크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주 1회 사용 4주 프로그램을 총 12주 분량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racletox.com)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1599-4240.

호텔라까사, 캐주얼모던 콘셉트 증축 오픈

까사미아

객실수 61개서 88개로 늘려 전객실 헤븐 매트리스 적용



까사미아가 운영하는 '호텔라까사(사진)'가 19일 증축 오픈을 하고 새 객실을 선보인다.

이번 증실을 통해 호텔라까사는 기존 61개 객실에서 새로운 콘셉트의 객실을 더해 총 88개의 객실을 보유하게 됐다.

새로 선보이는 객실은 '캐주얼모던(Casual Modern)' 콘셉트를 바탕으로 검정·파랑·빨강의 포인트 색상을 통해 산뜻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증실과 함께 전 객실에 까사미아의 매트리스 브랜드 '드림'의 헤븐 매트리스를 적용했다.

까사미아의 베스트셀링 가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호텔라까사의 대표적인 객실 '까사미아 스위트룸'에도 변화를 줬다. '까사미아 스위트룸'은 원목소재가 돋보이는 '버틀러' 시리즈를 비롯해 직선라인을 강조한 '덴스크', 트렌디한 북유럽 스타일을 재현한 '헤이든' 시리즈 등 세가지 스타일로 새단장했다.

한편 호텔 9층에는 한강 조망과 도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라운지&바(Lounge&Bar)'를 10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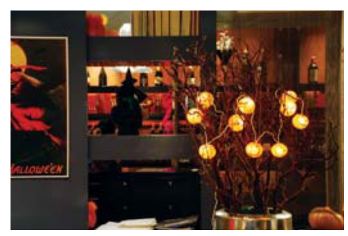
호텔라까사는 이번 증축 오픈을 기념해 호텔라까사 홈페이지(www.hotellacasa.kr)를 통해 예약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까사미아 아로마시리즈 3종과 조식, 까사밀 2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스타일업(Style Up)' 패키지를 운영한다.

/유현희 기자

호박·거미줄 장식… 할로윈 분위기 물씬

리츠칼튼 서울 더 리츠바

30~31일 할로윈 이벤트 숙박권·위스키 등 증정



리츠칼튼 서울은 할로윈 데이를 맞아 오는 30, 31일 양일간 '해피 할로윈 앳 더 리츠 바(Happy Halloween at The Ritz Bar)'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츠칼튼 서울의 더 리츠바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입구에서 계단까지 호박의 눈·코·입을 파서 만드는 잭-오-랜턴(Jack-O'-Lantern)과 검은 거미, 거미줄 등을 장식해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할로윈 복장을 한 직원들이 등장해 할로윈 데이 분위기를 낼 예정이다.

'해피 할로윈 앳 더 리츠 바' 스페셜 메뉴는 위스키, 와인, 맥주, 칵테일을 이용한 세트 구성이다. 직원에게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을 외치면 호박을 이용한 파이, 수프, 쿠키를 제공한다. 또 밤 11시에는 럭키 드로우 행사를 통해 리츠칼튼 서울 숙박권과 옥산 뷔페 식사권, 프리미엄 위스키 등을 증정한다.

더 리츠 바의 할로윈 데이 영업은 30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31일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유현희 기자

CJ오쇼핑, T커머스 채널서 패션쇼 생중계

CJ오쇼핑은 오는 22일, 25일에 T커머스 채널 'CJ오쇼핑 플러스'를 통해 '2015 패션 리얼웨이'를 방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패션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6일 서울 청담동 '드레스가든'에서 열린 '2015 리얼웨이' 패션쇼 현장 중계로 진행되는 방송은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런웨이 성격이 강하다.

이번 행사에는 실험적인 패션이 주류를 이루는 보통의 런웨이가 아닌 일상에서 바로 입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패션쇼 진행은 톱모델 한혜진과 쇼호스트 임세영, 이민웅이 맡았다.

CJ오쇼핑은 2015 리얼웨이 패션쇼 방송을 정오에서 오후 4시 사이로 배치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홍수경 CJ오쇼핑 패션방송제작팀 팀장은 "이제는 판매만을 위해 상품을 소개하기보다는 볼거리와 최신 트렌드 정보가 있는 패션쇼 콘텐츠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홈쇼핑이나 T커머스를 통해 쇼핑 뿐 아닌 최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풍부하게 준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star bag

유도 코치 변신



배우 **박신혜**가 조정석·도경수 주연의 영화 '형'(감독 권수경)에 합류했다. 박신혜는 두영(도경수)에세 제2의 인생을 제안하는 유도 코치 수현 역을 맡았다. 영화는 지난 19일 촬영을 시작했다.

12월에 백년가약



배우 **박효주**가 1세 연상의 사업가와 오는 12월 2일 결혼한다. 소속사 측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25일 추모식 개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유족, 동료, 팬과 함께하는 추모 행사 오는 25일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다. 일반 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로 행사를 진행한다.

3년 만의 콘서트



가수 **아이유**가 다음달 21~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전국투어 콘서트를 '챗셔'를 개최한다. 3년 만에 이뤄지는 공연이다. 발매 예정인 새 앨범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팬과 실시간 대화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가 오는 21일 오후 9시 네이버 V앱을 통해 팬과 실시간 소통에 나선다. 4인조 완전체로는 2년 만에 팬과 만나는 자리다. 멤버들의 근황과 새 앨범 소식 등을 전할 예정이다.

한 번뿐인 인생, 끝까지 도전해야죠

영화 '특종: 량첸살인기' 조정석



조정석(34)은 20대를 되돌아보면 "'열정' '눈물' 같은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우연찮게 시작한 연기의 길 위에서 그를 버티게 한 것은 "끝까지 해보자"는 강한 각오였다. 열정과 눈물은 뮤지컬 스타였던 그를 스크린 속 감초 조연에서 원톱 주연으로 이끌었다. 무대 위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에게는 뿌듯함을 느낄 이유가 충분하다.

오는 22일 개봉하는 '특종: 량첸살인기'(감독 노덕)는 조정석의 새로운 변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특종인 줄 알았던 제보가 일생일대의 실수로 밝혀지면서 위기에 처하는 방송국 기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를 통해 진실과 거짓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정석은 사건의 중심에 선 주인공 허무혁을 연기했다.



밀도 있는 이야기 재미에 끌려
최대한 비우고 캐릭터에 몰입
지금까지의 활동 뿌듯함 느껴
늘 그래왔듯 최선 다할 거예요

사회적인 메시지가 눈에 띈다. 그러나 조정석을 사로잡은 것은 메시지가 아닌 이야기였다. "시나리오를 받고 이야기에 빠졌어요. 허무혁이 하는 행동들은 악수 중에서도 최악수잖아요. 그 선택이 더욱 큰 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상황이 만화책처럼 다가왔어요. 이야기의 탄탄한 구성력이 재미있었죠." 성격이 명확한 캐릭터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캐릭터에 대한 공감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었다.

배우에게 첫 원톱 주연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다. 동시에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받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정석은 '특종: 량첸살인기'를 촬영하는 동안 첫 원톱 주연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촬영할 때는 부담감도 없었어요. 만약 부담이 있었다면 뒤어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전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도전을 선택한 거죠."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그는 최대한 상황에 몰입하며 연기에 임했다. 자신을 비우고 영화 속 허무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했다.

기자 역할을 맡았지만 전문가로서의 기자 캐릭터를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모두가 공감할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뉴스 리포팅하는 장면을 위해 9시 뉴스를 찾아보기는 했다. 그러나 기자의 생활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다. 조정석은 그저 영화 속 허무혁이 겪는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고 공감하기를 바란다.

알려진 대로 조정석은 처음부터 연기를 꿈꾸지 않았다. 10대 시절에는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되기 위해 부단히 연습했다. 그러나 연기가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배우가 됐다. 넘치는 열정만큼 자신의 연기가 따라주지 않아 눈물 흘릴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뿐인 인생, 기회가 오면 끝까지 도전한다"는 타고난 성격 덕택이었다. '건축학개론'의 납뜩이가 '특종: 량첸살인기'의 허무혁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3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조정석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잘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성장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의 다음 작품은 그룹 엑소의 도경수와 함께 하는 '형'(가제)이다.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세대 초월 성황

곽진언·삐삐밴드 등 다채로운 무대
다양한 콘텐츠 부스 볼거리 가득



음악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15(이하 GMF 2015)가 세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GMF 2015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성대한 축제의 장을 펼쳤다. 곽진언부터 삐삐밴드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다.

메인 무대인 민트 브리즈 스테이지에서는 감성적인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첫째 날은 듀오 노리플라이를 시작으로 곽진언, 장범준 등이 가을 감성을 적셨다. 밴드 데이브레이크는 15인의 현악 연주자와의 협연으로 라이브의 강자다운 면모를 발휘했다. 둘째 날은 소란, 페퍼톤스, 십센치 등이 흥겨운 퍼포먼스로 열정을 발산했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클럽 미드나잇 선셋 스테이지에서는 브랜드 공연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혁오·라이프앤타임·파라솔이 함께 기획한 '바트', 솔루션스·글렌체크·칵스가 함께 한 '라이브 아이콘 6' 등으로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다. 17일 헤드라이너였던 이승환은 '진짜쇼'를 통해 2시간 30분에 달하는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못과 삐삐밴드도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 팬과 만났다.

이번 GMF 2015는 공연 외에도 최대 규모의 플레이존, 키즈존 등 다양한 콘텐츠 부스를 운영했다. 아티스트를 위한 음악 권리 상담소를 마련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악 페스티벌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병호 기자


AD-418 LIKE A FLAME LIKE A WIND
뮤지컬
바람처럼 불꽃처럼
2015.10.31-11.29 | 유니버설아트센터
평일 8시 / 토요일 3시, 7시 / 일요일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한나 브라이언 전수미 박형규 이기동 여운 이용진 김고운
조유신 김영호 양지원 최정은 이재홍 박지훈 조은희 송임규 박보선 김예진 김수영 엄정욱 안준혁 권세정 최가현 김혜미 김서영 전소영 태빈
작,연출 김한나 | 작,편곡 황지혜 | 안무감독 박경수 | 프로듀서 HENNY KIM | 협력 프로듀서 박주형 | DRAMA TRUGY 이기동 | 기술감독 이슬기 | 무대감독 배성식 | 조명디자인 조성오 | 음향 PLANET SOUND | 음향디자인 이해원 | 무대디자인 홍수화
의상디자인 서보영 | 소품디자인 이경하 | 분장디자인 김종한 | 무대제작 수 무대 | 무대조감독 임규호 권예주 | 음악조감독 양예은 | 안무조감독 김순주 | 촬영 뭉치스튜디오 | 포스터디자인 이효민 | 슈퍼바이저 김경진 | 제작조감독 이태준 | 컴퍼니매니저 김현민
제작 공연그룹 드림뮤드 | 제작지원 와뮤지컬그라운드 파프프로덕션 | 후원 깜덴드림 | 홍보마케팅 아츠
공연문의 02-921-9871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본 공연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순수창작물임을 명시합니다.

‘투금탄 설화’ 재현한다

서울시 디자인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옛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감동, 상상으로 한강을 채울 수 있는 톡톡튀는 시민들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한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일환으로 19일부터 11월 2일 ‘투금탄 설화’ 구현을 위한 ‘2015년 한강스토리텔링 시민공모전’을 진행한다.

응모방법은 투금탄 설화에 나오는 ‘형제 조형물과 배 조형물, 투금체험 공간 등을 반영한 디자인과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의 실물 제작과 공간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대상 1팀(200만원), 우수상 2팀(50만원) 등 총 3개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70-8857-5505/02-3780-0776.

설치작가 ‘이상’의 신작, 파리를 깨우다

‘새벽의 노래 Ⅲ’ 팔레 드 도쿄서 내년 1월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현대차 시리즈의 첫 해외 전시회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직무대리 김정배)은 팔레 드 도쿄(관장 장 드 루아시)와 공동 주최로 작가 이불의 ‘새벽의 노래 Ⅲ AUBADE II’ 전시를 19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개최한다.

‘새벽의 노래 Ⅲ AUBADE III’는 한국현대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 중진 작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의 첫 번째 해외전이다.

특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돼 프랑스에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시는 이불의 가장 최신작과 작가의 작업 맥락을 집약적으로 보여줘 프랑스 현지 관객들에게 작가의 최근 경향을 소개한다.

이불(52)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욕현대미술관, 뉴뮤지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퐁피두아트센터 등 주요 해외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작가는 1980년대 작품 활동 초기부터 퍼포먼스, 설치, 조각적 작업을 통해 아름다움, 파괴 등을 주제로 한 인습타파적 작업을 펼쳐왔다.

1990년대 후반에는 기계와 유기체의 하이브리드인 사이보그 시리즈 작업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인류의 역사적 사건들과 결합시키고 성찰과 비판의 시각을 제시하는 대규모 설치작업인 ‘나의 거대서사 Mon grand recit’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이불-새벽의 노래III. /국립현대미술관

이번 전시작품 ‘새벽의 노래 III’는 ‘나의 거대서사 Mon grand recit’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그간 지속해온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은유적이고 진보된 사유와 성찰을 한층 발전시켜 확장된 형태로 제시한다.

‘새벽의 노래 III’는 독일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의 ‘새로운 법령을 위한 기념비’(1919)와 20세기 초 힌덴부르크 비행선 등 모더니즘 상징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를 서로 결합시켜 조명탑 구조로 발전시킨 형태다. 특히 전시 공간의 규모를 압도하면서 장소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형 설치작업이다.

작품명인 ‘새벽의 노래 III’는 유럽 중세 때 유행했던 연시(戀詩)에서 현대적 재해석까지를 담고 있다. 삶의 아름다움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 등을 담아내며 의미와 성찰을 확장해 나간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청심국제고 첫 번째 이야기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9시30분

청심국제고등학교 편 첫 번째 이야기다. 김정훈, 이준석은 은근한 라이벌 구도로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수업시간을 보낸다. 후지이 미나는 가슴 설레는 고등학교 생활을 맞이한다. 원더걸스 예은은 스페인어 실력을 깜짝 선보이며, 샘 해밍턴은 남다른 국제적 감각으로 엘리트 전학생으로 급부상한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 40분

참을 수 없는 푸근함을 지닌 음식 칼국수 특집이다. 찬바람 부는 날 생각나는 칼국수에 대해 살펴본다. 겉절이 레시피도 함께 공개된다.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바리톤 김동규가 돌아온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스킨십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7번 국도 버스 여행도 계속된다.



◆ KBS1 ‘이웃집 찰스’

오후 7시30분

한국 축구 2부 리그 부천FC에서 활약 중인 브라질 용병 삼총사의 이야기다. 브라질과는 너무 다른 한국 축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일(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안녕 우리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10:10 히든싱어 4 (재) 11:55 냉장고를 부탁해(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1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7:5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문제적 남자 (재)	05:00 그곳에 그집 05:30 스타 우리동네 장보고 06: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06:30 나를 바꾸는 30분 07:00 힐링로드 맛과 멋 (재) 07:30 명물인생 (재) 08:00 오감도 (재) 09:00 한국의 맛 시즌2 (재) 09:30 푸드 헌터 10:00 스타 뉴스 11:00 집밥의 여왕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96회 전국체육대회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야생일기 (재) 16:30 특보-남북이산가족 상봉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 50 불타는 청춘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2:15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3:50 두번째 스무살 (재) 15: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30 Chopped Canada 13:30 당신을 주문합니다 (재) 14:30 식신로드 시즌2 (재) 15:30 오감도 16: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열정식당 (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특집 KBS 뉴스 9 22:00 특집좌담 이산가족상봉 남북관계개선 전기되나 23:00 KBS 뉴스라인 23:40 ABU 국제공동제작 CARE5 학교가는 길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 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1 대 100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PD수첩 24:30 MBC 뉴스 24 24:15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2:5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24:15 마녀사냥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8:40 명단공개 (재) 19: 40 오마이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4:50 현장토크쇼 TAXI (재)	18:00 Gags 18:30 류승주의 건물탐방 19:00 당신을 주문합니다 (재) 19:30 식신로드 시즌2 (재) 20:30 푸드 헌터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2:00 Cutthroat Kitchen 23:00 당신을 주문합니다 (재)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최하위 동부·LG, 중위권 도약 노린다



프로농구 2015-2016시즌 정규 리그가 2라운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최하위인 원주 동부와 창원 LG가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강원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동부와 LG의 경기 장면. /연합뉴스

프로농구

초반부터 중위권 두텁게 형성
한두경기 결과 따라 순위 요동

프로농구 2015-2016시즌 정규리그가 2라운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최하위인 원주 동부와 창원 LG가 중위권 도약을 향한 새로운 반전을 노린다.

팀당 12~14경기를 치른 가운데 고양 오리온이 11승1패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반대로 원주 동부와 창원 LG는 4승10패로 공동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5할 승률 안팎에서 중위권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울산 모비스가 최근 5연승을 거두며 8승4패로 단독 2위에 올라 있다. 3위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이상 7승6패)부터 5위 인천 전자랜드(6승6패), 공동 6위 서울 SK와 안양 KGC인삼공사(이상 6승7패), 8위 부산 케이티(5승7패)까지 모두 한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을 칠 수 있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동부와 LG로서는 시즌 초반 중위권 레이스에 합류하지 못하면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특히 동부는 개막 이전만 하더라도 강세가 예상됐지만 최근 5연패로 고전 중이다. 간판선수인 김주성(36·205㎝)이 발가락을 다쳐 약 한 달간 결장하고 있어 공백이 크다.

동부는 2011-2012시즌 정규리그에서 44승10패를 기록하며 최다승 기록을 세운 주축인 김주성, 윤호영, 로드 벤슨이 올해 다시 호흡을 맞추게 돼 기대가 컸다. 그러나 김주성이 돌아올 때까지 힘겨운 행보가 예상된다.

김영만 동부 감독은 "김주성이 없다 보니 강약 조절 등을 통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아쉽다"며 "김주성은 11월이나 돼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G는 어느 정도 약세가 예상됐다. 김시래가 입대했고 문태종은 오리온으로 이적했다. 김종규는 국가대표 차출로 이달 초에 복귀했다.

최근 7연패 늪에 빠져 있던 LG는 지난 16일 KCC를 꺾고 한숨을 돌렸다. 18일에는 동부와의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해 모처럼 연승 분위기를 탔다. 김종규와 트로이 길렌워터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중위권 도약을 기대할 만하다.

김진 LG 감독은 "연패를 끊으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며 "가드가 약하다고 하지만 다른 동료 선수들이 한 발짝 더 뛰는 농구를 통해 만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연 MBC 해설위원은 "동부는 김주성이 돌아오면 어느 정도 좋아지겠지만 전력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동부와 LG는 물론 케이티까지 다른 팀들에 비해 전력에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건연 위원은 "다만 하위권 팀일수록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들을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다음 주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유로2016 PO, 스웨덴-덴마크 벼랑 끝 대결

스위스 니옹서 대진 추첨
내달 홈 앤드 어웨이 방식 시작



유럽축구연맹(UEFA)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니옹에서 유로 2016 본선에 나갈 플레이오프 대진 추첨을 했다. /AP 연합뉴스

스웨덴과 덴마크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플레이오프로 맞대결한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니옹에서 유로 2016 본선에 나갈 플레이오프(PO) 대진 추첨을 했다.

조별리그 9개조 1~2위팀과 3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터키가 본선에 직행했다. 나머지 8개팀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4개 팀을 가린다.

북유럽 강호 스웨덴과 덴마크는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스웨덴은 G조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이어 조 3위에 그쳤다. 덴마크는 I조에서 포르투갈과 알바니아에 이어 조 3위를 차지했다.

1992년 유로 4강에 오른 바 있는 스웨덴은 통산 45승19무40패로 덴마크에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유로 2000 이후 16년 만에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을 노리는 노르웨이는 30년 만에 본선 진출을 노리는 헝가리와 맞붙는다.

지난 대회 개최국인 우크라이나는 슬로베니아를 상대한다. 첫 본선 진출을 노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아일랜드와 대결한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플레이오프는 다음달 12~14일 1차전, 같은 달 15~17일 2차전이 치러진다.

/장병호 기자

케빈 나, 연장전 끝 패
신인 그리요, 첫 우승

신인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재미동포 케빈 나(32)는 4년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컨트리클럽 노스코스(파72·7203야드)에서 열린 2015-2016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케빈 나는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케빈 나는 2차 연장전에서 보기에 그쳐 버디를 기록한 그리요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올 시즌 PGA 투어에 데뷔한 그리요는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08만 달러(약 12억2000만원)다.

그리요는 이번 우승으로 2년 동안 PGA 투어 출전권과 마스터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등 주요 대회 출전권도 확보했다.

케빈 나는 2011년 10월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뒤 4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 돌아서야 했다. /장병호 기자



신인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컨트리클럽 노스코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5-2016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AP 연합뉴스

간판스타들 성적표 '희비'

기보배, 60·70m 2관왕

전국체전

김국영, 첫 체전서 금메달
진종오, 공기권총 5연패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한국 대표 간판스타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기보배는 지난 17일 열린 양궁 여자 일반부 60m와 70m에서 1위를 차지해 대회 2관왕이 됐다.

기보배가 전국체전 금메달을 딴 것은 제93회 대회 이후 3년 만이다. 2012 런던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가 국내 대회인 전국체전에서 다시 명성을 떨치기까지 3년이 걸린 것이다. 지난 18일 단체 종합에서는 광주선발팀으로 출전해 4145점으로 비공인 세계기록도 올렸다.

그러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이특영과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기보배와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이성진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특영은 60m와 70m 모두 10위권에 머물렀으며 이성진은 40위권까지 떨어졌다.

한국 육상 단거리의 간판 김국영은 18일 남자 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32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0년 일반부 출전 이래 자신의 첫 번째 체전 1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보배가 18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양궁 50m 예선전에 앞서 연습을 하던 중 사로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런던 올림픽 남자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진종오는 울다가 웃었다. 17일 사격 남자 일반부 50m 권총 결선에서 고등학생 신예 사수 김청용에게 0.7점 차이로 밀려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신 18일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199.1점으로 1위를 차지해 5연패를 달성해 아쉬움을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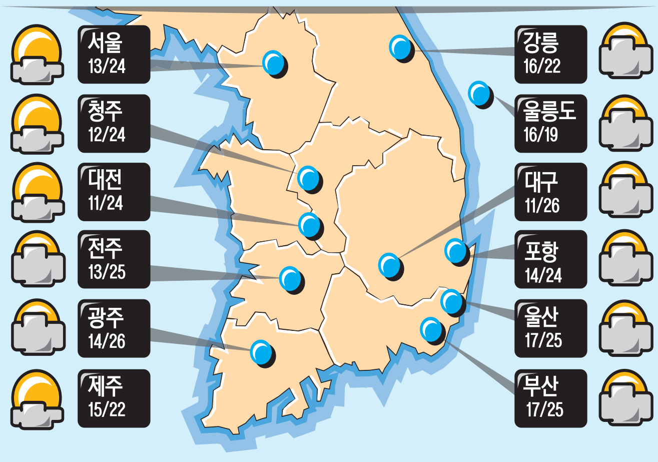
'역도왕' 사재혁은 부상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재혁은 16일 역도 남자 85㎏급에서 인상 156㎏, 용상 190㎏, 합계 346㎏을 기록했다. 인상과 합계만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상은 4위로 밀렸다.

스타 선수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유도의 김재범과 왕기춘은 20일 각 남자 일반부 개인전 무제한급과 81㎏ 이하급에 출전한다. 레슬링 김현우는 20일 남자 일반부 그레코로만형 75㎏급, 태권도 황경선은 22일 여자 일반부 67㎏급에 출격한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20 화 일출시각 06:44 일몰시각 17:4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6				1
6	7			5		2		
		1				7	6	
	3		4					
		7	3		2	4		
					5		2	
	8	6				1		
		5		9			4	2
4				3	6	8		

	3					9	2	
	1			8			5	3
			3			7		1
3		9	5	4		2		
			7		3			
		6		2	1	5		7
5		4			2			
7	9			5			8	
	2	1					4	

스도쿠 정답

8	4	2	7	6	3	9	5	1
6	7	3	9	5	1	2	8	4
9	5	1	2	4	8	7	6	3
2	3	8	4	7	9	5	1	6
5	6	7	3	1	2	4	9	8
1	9	4	6	8	5	3	2	7
7	8	6	5	2	4	1	3	9
3	1	5	8	9	7	6	4	2
4	2	9	1	3	6	8	7	5

6	3	5	4	1	7	9	2	8
9	1	7	2	8	6	4	5	3
2	4	8	3	9	5	7	6	1
3	7	9	5	4	8	2	1	6
1	5	2	7	6	3	8	9	4
4	8	6	9	2	1	5	3	7
5	6	4	8	3	2	1	7	9
7	9	3	1	5	4	6	8	2
8	2	1	6	7	9	3	4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am ready for the meeting

A: Where were you?

B: I was working on today's meeting agenda.

A: Are you ready to present?

B: Yes, I am ready for the meeting.

A: Good. We are ready for everything.

B: Let's get inside. We are running late.

회의 준비가 됐어요

A: 어디에 있었나요?

B: 오늘 회의 안건을 작성 중이었어요.

A: 발표할 준비가 됐나요?

B: 네, 회의 준비가 됐어요.

A: 좋아요. 우리는 모두 준비됐어요.

B: 들어갑시다. 늦겠어요.

문법Point

준비되었다고 확인시켜 줄 때는 'be ready for+명사' 또는 'be ready to+동사원형'을 사용한다. 의문문을 만들 경우에는 주어 앞으로 be동사를 이동시키면 된다.

ex) I am ready for the exam.
시험 준비가 됐어요.
ex) We are ready for the presentation.
우리는 발표 준비가 됐어요.
ex) Are you ready to present?
발표할 준비가 됐나요?

Words

meeting agenda 회의 안건 present 발표하다
run late 늦어지다

* Let's get inside : 안으로 들어갑시다
–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빨리 들어가자고 재촉하거나 권유할 때 적절한 표현.
* We are running late : 늦겠어요.
– We are late는 확실하게 '늦었어요'라는 의미인 반면 'We are running late'은 '(서두르지 않으면)늦겠어요'라는 의미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앞으로 결혼 할 수 있을까요? 재물 궁핍은 없겠으나 재혼남과 인연

만리만리 여자 82년 9월 21일 양력 22시 10분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여자 82년 양력 9월 21일 오후 10시 10분입니다. 저는 소개를 받고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34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소개팅도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직 인연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결혼 운과 앞으로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A 운명적으로 예정된 흉화를 사람이 피해갈 방도는 없다고 보며 다만 알게 모르게 어떤 형태의 대체 물상으로는 겪게 되어 있다는 의미로 알아보고 더러는 피해가기위해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을 자주 올리는 이유는 전장에서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늘 필요한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것도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알고 상대를 대해야 잘 될 수 있겠지요. 생일지(生日支)에 식신(食神: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남자를 극함)과 편인(偏印: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문서)이 내재 되어 있으니 돈을 벌어 결혼 전에 미리 작은 집을 사겠다는 계획을 정해 놓으십시오. 근검절약하고 이미 집을 사 놓은 친구가 있을 테니 문의를 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성격에 속단하여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일면이 있어 뒤늦게 후회하니 무슨 일이든 꼼꼼히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남에게 잘 베푸는 가치관이 일반인과는 다소 다르기에 나이 들수록 재물의 천을귀인(天乙貴人)이 있어서 금전적인 궁핍이 없고 보이지 않은 귀인의 조력(助力)으로 평생 안락합니다. 정화(丁火)사주가 초년에 애인을 가져 본적이 있으나 백호(白虎)의 흉살이 작용하고 을미년(乙未年)인 올해도 역시 암장 돼 있는 정화(丁火)가 작용되어 성혼이 안 됩니다.

정관(正官:남편)이 귀하에 운로에서 사묘절(死墓絶:죽어서 묘지에 들어가 단절되는 흉함)로 하향길을 걷게 되니 이별을 한번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일면으로는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0일 (음 9월 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0년생** 가벼운 운동이 길합니다. **72년생**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84년생** 귀하의 운이 너무나도 길합니다.

소 **49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1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73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얘기하는 것이 길합니다. **85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됩니다.

호랑이 **50년생** 강한 고집은 흉합니다. **62년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4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86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63년생** 업무에 잔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75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7년생** 쉽게 지치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용 **52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4년생** 길한운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76년생** 유쾌한 하루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88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뱀 **53년생**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65년생** 꽃보다는 열매라는 식으로 실속을 취하세요. **77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89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세요.

말 **54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66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할 것입니다. **7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90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 **55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79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세요. **91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원숭이 **56년생** 독서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68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어진 사람과 대화하세요. **80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보세요.

닭 **57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69년생**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81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93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 **58년생** 말을 조심하세요. **70년생** 일이 차차 해결 될 것입니다. **82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94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돼지 **59년생**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1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83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 반토막 내려 하는가



김필수의 차 이야기

국내 수입차 시장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재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행되는 사안이 심각성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폴크스바겐 사태가 불길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었다.

국내 수입차 중 약 70%가 승용 디젤차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특히 독일 4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입차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사건은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클린디젤의 명성에 흠집을 내었고 더 이상 디젤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각종 제제를 통하여 디젤차는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심지 노후 디젤차 진입을 억제하는 LEZ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환경기준 등도 엄격하게 진행되면서 디젤차는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단순히 폴크스바겐의 문제가 아닌 독일 4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차의 흐름에 큰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은 수입차의 상승곡선을 위축하는 것은 물론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수입차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규제가 동시에 발동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수입차의 부품비와 공임이 국산차 보다 매우 높다. 대체품 활용 등 각종 방법이 마련되면서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문제가 수입차의 노력이 부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문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수입차 애프터마켓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로 사업용 차량의 세제 개정안이다. 현재 전체 수입차의 약 40%가 사업용 차량이고 2억원 이상의 차량은 90%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만큼 수입차 중 사업용 차량에 기대는 범위가 크다는 뜻이다.

향후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은 물론 상한치는 약 3000만~4000만원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출퇴근 차량까지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수입차 중 고가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종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당 부분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자동차세 개선 방향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가한다는 것인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물로 이 개선 방향은 무리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가격이 높으면 배기관련 장치 등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환경적인 요소가 개선될 수 있는 등 장점도 큰 만큼 무작정 가격 기준의 세제 부담은 문제가 있다.

특히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한번에 제도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리어 선진국과 같이 배기량에, 환경적 기준, 가격 기준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거울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는 1.21명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23조원을 투입해 출산율 높이기를 시도해 왔지만, 15년째 '초저출산국가'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출산 늘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보면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육체계 개편과 육아휴직 기간확대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국가가 나서 처녀 총각의 단체 미팅을 주선하고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차라리 코미디 같다. 정부가 결혼정보회사까지 차리겠다는 것인지 헛웃음만 나온다.

사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낳기를 기피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나 다름없다. 부모들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무한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하는 고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조차 아까와 한다. 게다가 비싼 사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자식교육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 버린다.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부모들은 극심한 삶의 피로를 겪는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지쳐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겹게 성장한다. 젊은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취업전망을 비롯해 앞날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없이 그저 결혼하고 출산만 하라고 하면 그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특별한 왕도가 없다. 사회구성원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 만한 사회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없이 그저 미팅이나 주선한다고 출산율이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대책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보다 진실되고 깊은 성찰이 담긴 방안을 다시 마련해 주기 바란다.

'4시 퇴근 발언'과 '관치개혁'



기자 수첩
김 보 배
<파이낸스&마켓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오후 4시 퇴근' 발언 이후 금융업계는 '개혁바람'이 거세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나.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며 금융권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소리"라며 "장구업무 이후 여러 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오후 7~8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 발언은 4시 퇴근 여하를 막론하고 금융권 개혁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측면에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그동안 정권이 금융권 인사 등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치'와 금융기관의 무사안일한 '보신주의'가 지속적인 개혁 과제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은 연일 감독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사 등 업계 전반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자구책 마련 움직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고액연봉,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자 급기야 정계가 금융권 개혁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 TF는 대출상담 등 일부 업무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표 금융개혁'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신(新)관치금융'의 시작"이란 우려까지 반응은 각각이다.

특히 금융권 종사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고용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연봉을 자진 반납하며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이미 '정부 눈치보기식 개혁'이 만연한 탓에 오히려 업무 효율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14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국가경쟁력은 87위로 현저히 낮다. 금융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데엔 이견이 없다. 지난 16일 발족한 금융개혁 TF가 '관치개혁' 틀 안에서 반쪽뿐인 개혁에 그치질 않길 기대한다.

이혼소송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생활 법률

결혼생활 17년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 최근 두사람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가 위자료를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해 서로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사람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가정법원에서 벌어질 법리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위자료는 일종의 피해 보상비며, 피해를 입힌 자가 피해를 본 자에게 물어줘야만 하는 의무적인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시에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양육비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것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산정해야 할 법관의 판단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사유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혼인파탄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 상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를 잘 알아둬서 수집해야 한다. 정신적·금전적·물리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진단서, 녹음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 사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서병재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장우삼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전진석 △서기관 ▷교원복지연수과장 김태현 ▷교육부 임연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김희겸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장 문기정 △부이사관 승진 ▷절충교역과장 한기인 ▷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 이명우 ▷보라매국제협력팀장 정재준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송진길

◇삼성자산운용 △신규 임원선임 ▷패시브(Passive) 전략본부장 문경석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승진 ▷신용사업부문 박학양 △본부장 승진 ▷충청영업본부 이상율 ▷신용보증부 조경식 △부서장 전보 ▷재기지원부 길병권 △영업점장 전보 ▷화성서 송을호

노화와 질병의 원인 수소수가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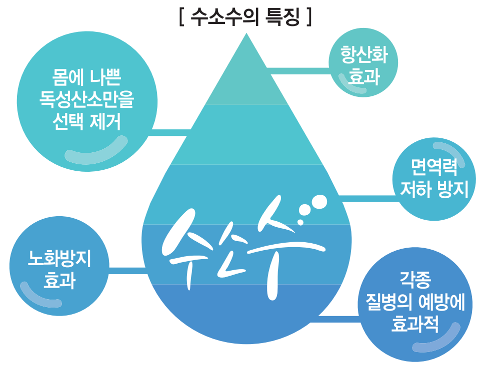
수소가 선택적으로 독성산소의 상해로부터 세포를 지킨다 – Nature Medicine 저널 발표



수소수가 답이다
지음 임동수·김서곤
출판사 상상나무
200쪽 | 값 13,500원

Contents / 수소水가 답이다!





질병의 90% 이상은 독성산소가 원인이다

활성산소는 면역기능에 사용되는 좋은 활성산소와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 성산소(독성산소)로 나뉜다. 독성산소의 발생은 고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과식, 음주, 흡연 및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결국 세포를 병들게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회 이상 호흡하며, 양으로 따지면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호흡을 통해 드나든다. 호흡으로 흡수되는 산소는 1,500리터에 달하며, 이중 2~3%(약 30리터)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활성산소(독성산소)가 된다.

독성산소는 세포안에 DNA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 돌연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독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루게릭,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질병의 90%가 바로 독성산소가 원인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 결국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전염병의 70%를 예방해준다. 독성산소는 인체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 속 독성산소를 씻어주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요, 지름길이다.

기적의 항산화제, 수소

인체에는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인체 내 천연효소로서 항산화효소(SOD)가 있다. SOD는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생성되지만, 35~40세가 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수소는 독성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인체 각 기관 및 뇌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이다. 수소는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

기적의 비밀은 수소수

최근 학계에서는 미네랄워터, 심층수,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를 주목한다. 프랑스 루르드의 샘물, 독일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 나다나의 우물 등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물을 분석한 결과, 기적의 원인으로 생각할만한 특별한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던 2007년 5월, 미국의 과학지 '네이처 메디슨'은 일본의과대학 대학원 오타 시게오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수소가 활성산소(독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수소를 녹인 물이 강한 산화력을 가진 독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래디칼(Hydroxyl Radical)'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전 세계에서 치유의 물로 일컬어지는 물들이 수소수 연구실로 모이게 되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밝혀냈다. 기적의 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수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성산소만을 제거하는 수소수!

물은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어 온 몸을 순환하는데, 30초 후면 혈액에 흡수되고, 1분 후 뇌, 생식기, 태아에 전달된다. 10분 후엔 피부조직, 20분 후엔 간, 심장, 신장에 도달하며,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 어디든 가며, 따라서 수소수는 몸 속 독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전국서점 판매중** **도서출판 상상나무**

문의 031.971.4800/www.smbooks.com

SOLCO.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코스닥 상장기업
외길 42년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정형외과 전문의 선호도 1위 기업

수소샘 H₂-Tumbler®

"몸이 알아요.
맘이 느껴요.
삶이 변해요."

신제품 출시 한정이벤트
100분
에게만 드립니다



수소샘 텀블러
SHT-201

물만 있으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수소수

수소샘 텀블러 활용도 ❶ / 물을 건강하게, 나를 건강하게

도서관	사무실	운동	산	여행	아토피	다이어트	주부	운전	'밤' 근무
힘든 수험생	늘 야근에 야근, 야근에 힘든 분	산책이나 스포츠를 할 때	건강을 위해 등산하시는 분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	물 때문에 괴로운 분	체중으로 고민하시 분	슈퍼우먼처럼 일하시는 분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	새벽을 낮처럼 일하시는 분

[솔고 수소수생성기만의 특별함] 수소샘 텀블러 ▾ 검색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수소용존시간이 오래 유지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5분안에 빠르게 스마트 원터치 생성	전세계 어디서나 DC 5V, 충전식 배터리로 사용	친환경 트라이탄 BPA-free 소재 (환경호르몬 비검출)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24시간 무료주문전화 **080-262-3000** |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 **www.solco.co.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07-송탄-115호